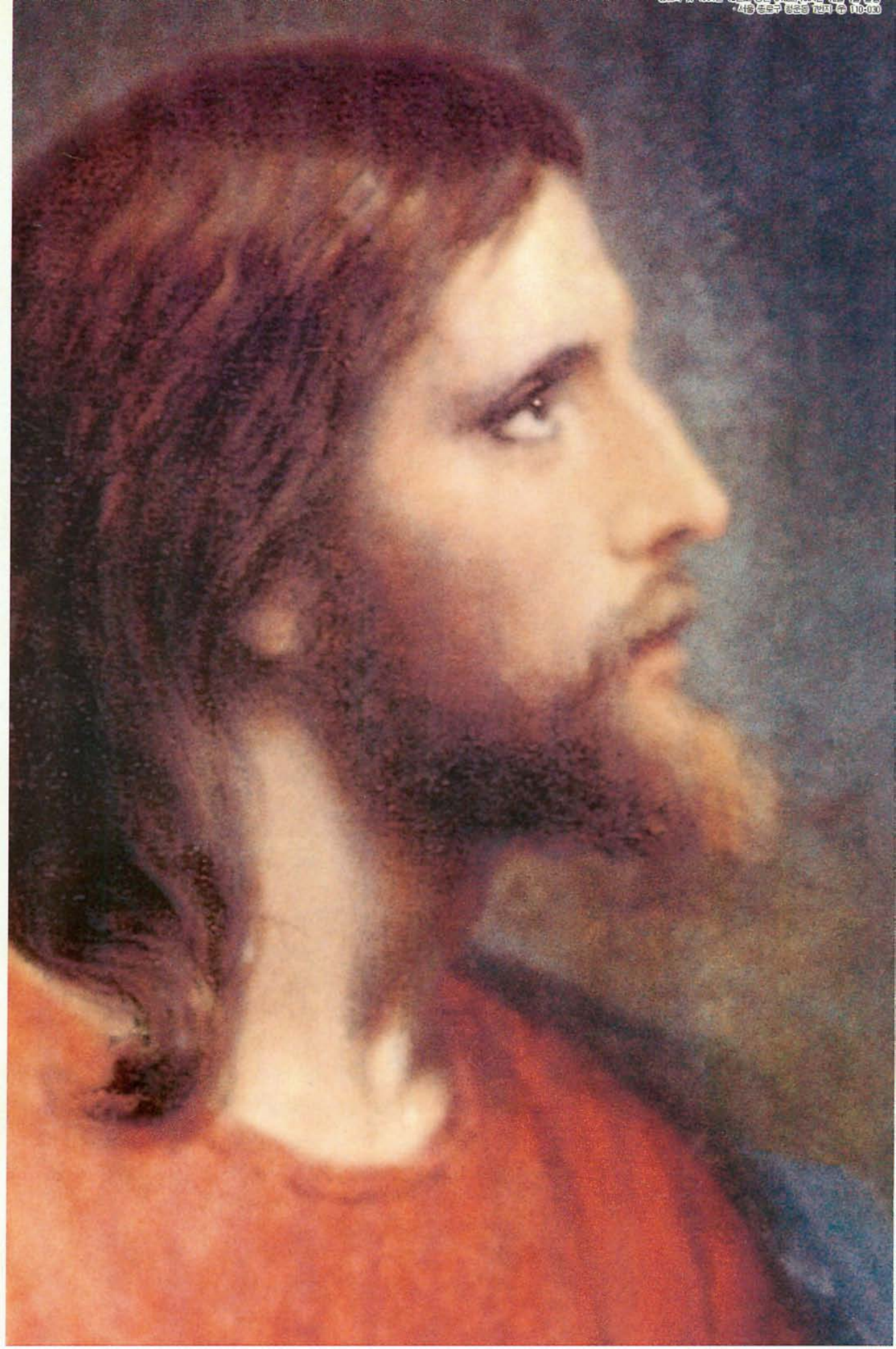


말씀성도
에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역사 I 2 1994

별책 부록: 어린이란





표지 설명:

이번 호에는 십이사도 정원희의 날 에이 맥스웰 장로가 쓴 기사가 실려 있다. 이 기사는 구세주를 믿는 참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성을 다루고 있다. "참된 신자", 10쪽 참조. (앞 표지: 그리스도와 시리아의 여인, 안톤 도르프, 수퍼스톡, 뒷 표지: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어린이란 표지 설명: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일반

대관장단 성탄절 메시지	1
대관장단 메시지 : 항상 선한 일을 함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2
45년 동안의 십일조 계정 버논 엘 힐	8
헝가리 국민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제프리 에스 맥클란	16
민들레에게서 얻은 응답 밀리 프리츠 레이에스	32
몰몬경에 나타나 있는 크리스마스	34
미크로네시아에 새로운 향로를 만듦 알 발 존슨	40

청소년란

참된 신자 날 에이 맥스웰 장로	10
왜 날 깨우지 않았죠?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22
포르투갈에서의 크리스마스 밤 반더 페레이라 드 안드라데	26
나는 그가 예언자란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파 알 칼루요	30

정기 특별 기사

방문 교육 메시지 : 영적인 확신	25
--------------------------	----

어린이란(별책 부록)

성탄절 메시지 대관장단	2
노래 : 성탄 축하 패트리샤 켈시 그레이엄	4
성탄절 공예	6
함께 나누는 시간 : "주 예수를 닮으려고" 주디 에드워드	7
이야기 : 사라 모즐리의 뒤늦은 크리스마스 선물 레이 골드럽	10
친구 사귀기 :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사는 키릴 키릴룩과	
타냐 홀로쇼 로즈메리 지 파머	13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 -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시모니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 -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케냐 -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스

심야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밥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몬슨, 앨런 에이치 옥스, 앨 러셀 블란드, 조셉 비 워스리,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편집인: 렉스 디 피네가, 조 제이 크리스티슨
고문: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스펜서 제이 켄다, 존 에이치 그로버그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니이텐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그래픽 부장: 앨 엠 가먼사키
성도의 벗: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밥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편집인 보조/어린이란: 대앤 워커

스케줄 관리: 매리앤 마틴데일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켈렌

디자인: 새리 록
생산 관리: 레이날드 제이 크리스티슨, 제니퍼 태트와일러, 제인 앤 켈프, 데니즈 커비

구독 담당 스태프:
발행 부서 책임자: 토마스 엘 피터슨

배부 부장: 조이스 헨스
마케팅 부장: 조이스 헨스, 켄트 에이치 소렌슨

통 권: 제345호, 제31권, 제1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리-3166

발행일: 1994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원

편집인: 한 상의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운동 7번지
인쇄인: 성립 인쇄 주식회사 김 현 수

© 1994년 개간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열여섯 번지 -10/92

승인 -10/92 December 1994 International Magazine of the 번역본, Korean, 94992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대만,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ward/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대관장단 성탄절 메시지

성탄절은 바쁜 절기입니다. 거리와 상점은 막바지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고속 도로에는 차량들이 늘어나고, 공항도 사람들로 북적댁니다. 모든 기독교계는 음악과 조명과 축제의 장식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빵 굽기, 겨우살이 장식, 선물을 주는 것들이 모두 성탄절을 경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이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구세주의 삶과 사명, 그분이 가르치신 원리, 또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분의 희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역사적인 실존 인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 어느 시대에 살든지,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은 들어오실 것입니다. 평강의 왕자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화평을 주셔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의 참된 정신을 이해하고 그 달콤함에 취하려 한다면, 이 절기의 분주함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고요한 시간에, 고요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혼자서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받은 훌륭한 것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십시오. 또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 그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머지 않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길이 올바른 길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소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로마서 14:11) 은유함이 잔혹함보다 낫고, 친절함이 무력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언젠까지, 우리는 더욱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한 기쁨의 유일하고 참된 근원이시며,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화평은 그분 안에서 찾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으며,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찢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이사야 53:4~5 참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은 오랫동안 그분의 강림을 기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구세주이시며,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주님에게 있습니다. □



항상 선한 일을 함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사 람들에게는 각자 성탄절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포장지로 예쁘게 싸 선물을 주고받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캐럴을 부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성탄절을 즐겁게 보냅니다. 그때 먹은 맛있는 음식은 다음 성탄절이 될 때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성탄절이 되면 온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앉아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에는 이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들에 의해 단순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쓰여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어린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가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야 하며, 그 이야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구세주 탄생의 기쁨과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니누기 위해 성탄 절기에
함께 모이는 부모와
자녀들에게는 거룩한 아기에
관한 이야기야말로 대대로
마음을 끌어 온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많은 작가들이 신약 성서를 참고로 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작품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가진 작가들은 그분을 이해하며 그리스도에 관한 아름다운 글을 썼습니다. 많은 작가들 가운데 찰스 디킨스는 영국 당대의 가장 인기 있는 유명 작가였습니다. 1812년에 태어나 1870년에 세상을 떠난 찰스 디킨스는 “두 도시 이야기”, “위대한 유산”, “크리스마스 캐럴”, “니콜라스 니콜비”, “올리버 트위스트”, “데이비드 코퍼필드” 등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열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그는 자녀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나온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또한 주님을 사랑했으며, 자신의 자녀들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1849년에 그는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집필하던 중 잠시 시간을 내서 *주님의 일생*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작품은 출판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그 작품을 출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작품은 개인적인 것이었으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소박한 간증이었습니다. 그 자녀들 역시 성장해서도 그 작품이 출판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그 작품은 85년 동안 오직 그 가족만의 것으로 간직되었습니다. 마침내 찰스 디킨스의 막내 아들이 1933년에 세상을 떠나고 그 세대가 모두 죽고 나자, 디킨스의 후손들은 마침내 그 작품을 출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34년에 저는 런던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디킨스의 *주님의 일생*이 신문에 연재물로 나올 예정이라는 광고가 실렸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당시 저는 그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작품은 연재물로 실린 후에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나, 점차 그 관심도 식어가는 듯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힝클리 자매는 그 책을 구입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교리적으로 우리와 맞지 않는 것들도 없지 않았지만, 참으로 아름답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쓰여진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탄 절기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그 중 몇 구절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디킨스가 쓴 그대로를 가감하지 않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란

다. 이 세상에서 그분만큼 착하고 친절하고 온유하시며, 잘못을 저질렀거나 또는 아프거나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듯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없었단다. 이제 그분은 천국에 계시며, 우리도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 곳으로 가서 그 곳에서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므로,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분은 거의 이천 년 전인 아주 먼 옛날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단다. 그분의 부모님들은 나사렛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분의 부친은 요셉이었고 모친은 마리아였는데, 베들레헴에는 그들과 같은 목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이나 집에 머물 방을 찾을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마구간에 머물게 되었지. 바로 이 마구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거야. 그 곳에는 아기를 낳을 요람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말이 먹이를 먹는 그릇인 구유에 예쁜 아기를 낳았어. 그러자 아기는 구유에서 잠이 들었단다.

“아기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밝고 아름다운 천사들이 들판 저편 공중에서 그들을 향해 다가왔단다. 처음에 목자들은 무서워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숨으려 했었지. 그러나 그 천사는 ‘오늘 이곳 가까운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탄생하셨는데, 그 아기는 자라면서 너무 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을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실 것이라. 그리고 그 아기는 자라서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싸우거나 해하지 말라고 가르칠 것이라.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 불릴 것이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포함시키며, 또한 자신들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셨단다. 이렇게 말한 다음 그 천사는 목자들에게 마구간으로 가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보라고 말씀하시며, 목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 천사가 알려준 곳으로 가서 잠들어 있는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축복하시는데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런던이 영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것처럼, 당시에는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이 가장 큰 도시였단다. 그 예루살렘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누가복음 2:15~16)

날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왕에게 ‘저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아기가 있는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지. 사악한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질투심이 생겨서, 자신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숨긴 채 박사들에게 그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박사들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별이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왔는데, 지금은 이곳에 서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헤롯 왕은 그들에게 만일 그 별이 아기가 태어난 곳을 보여 주어 아기를 찾게 되거든 돌아와 자신에게 알려 달라고 명령했지. 그래서 박사들은 밖으로 나왔으며, 별은 그들

보다 약간 앞선 채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더니, 마침내 아기가 태어난 곳에 머물렀단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명하신 것이란다.

“별이 멈추자, 박사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아기와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았지. 박사들은 아기를 무척 사랑했으며, 아기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갔는데, 헤롯 왕에게는 가지 않았단다. 그들은 헤롯 왕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질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박사들은 밤중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주님의 일생, 런던:연합 신문, 1934년; 재판,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출판사, 11~17쪽)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디킨스는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요셉이 그분의 부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친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육신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디킨스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칭합니다. 디킨스는 주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그분이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에 관해 기록한 다음, 다음과 같은 말로 짧은 작품을 마칩니다.

“명심하거라! 우리에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조차 항상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온유하고, 자비롭고, 용서하며, 이 모든 것을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간직하며, 결코 뽐내어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지 않고, 다만 매사에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는 것 이란다. 이같이 행동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고, 화평 가운데서 살다가 평화롭게 죽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걸 그분께 확실하게 바랄 수 있을거야.”(같은 책, 124~127쪽)

우리는 모두 디킨스의 불후의 명작인 *크리스마스 캐럴*을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구두쇠 부자 영감인 에버네저 스크루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스크루지는 자신의 직원인 보브 크라치트에게 매우 인색하고 매정하게 대합니다. 그러던 중 성탄절 전날 밤에, 스크루지의 동업자였던 죽은 제이콥 말리가 찾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성탄절에 관한 시현을 보여 줍니다. 이 끔찍스러운 경험으로 스크루지는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크루지는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고는 무척 기뻐했으며, 그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크라치트 가족을 찾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잘 나타내 줍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이기심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이야기이며, 무관심이 깊은 관심으로 바뀌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것은 다리를 저는 꼬마 아이인 타이니 팀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다”고 큰 소리로 외치는 감미로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내용을 다룬 디킨스의 대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생*은 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집필되었으며, 꾸밈이나 상상의 비약 없이 단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작품은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심하거라! 우리에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조차 항상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라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디킨스는 이처럼 단순한 언어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그가 살아 있을 당시는 물론, 그 후 수세대 동안 수백 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의 소설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러나 디킨스의 자필로 쓰여졌으며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수정을 가하지 않은 작품인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는 85년 동안 그의 가족들이 보물로 비밀스럽게 간직했었으며, 그 후 원작을 교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편집하여 인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그의 가족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주님의 일생*은 이 세상에 사셨던 가장 위대한 분의 탄생과 삶과 죽음을 간증하는 수많은 글들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위대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시고, 평강의 왕이며,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이 위대한 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침례 요한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누가복음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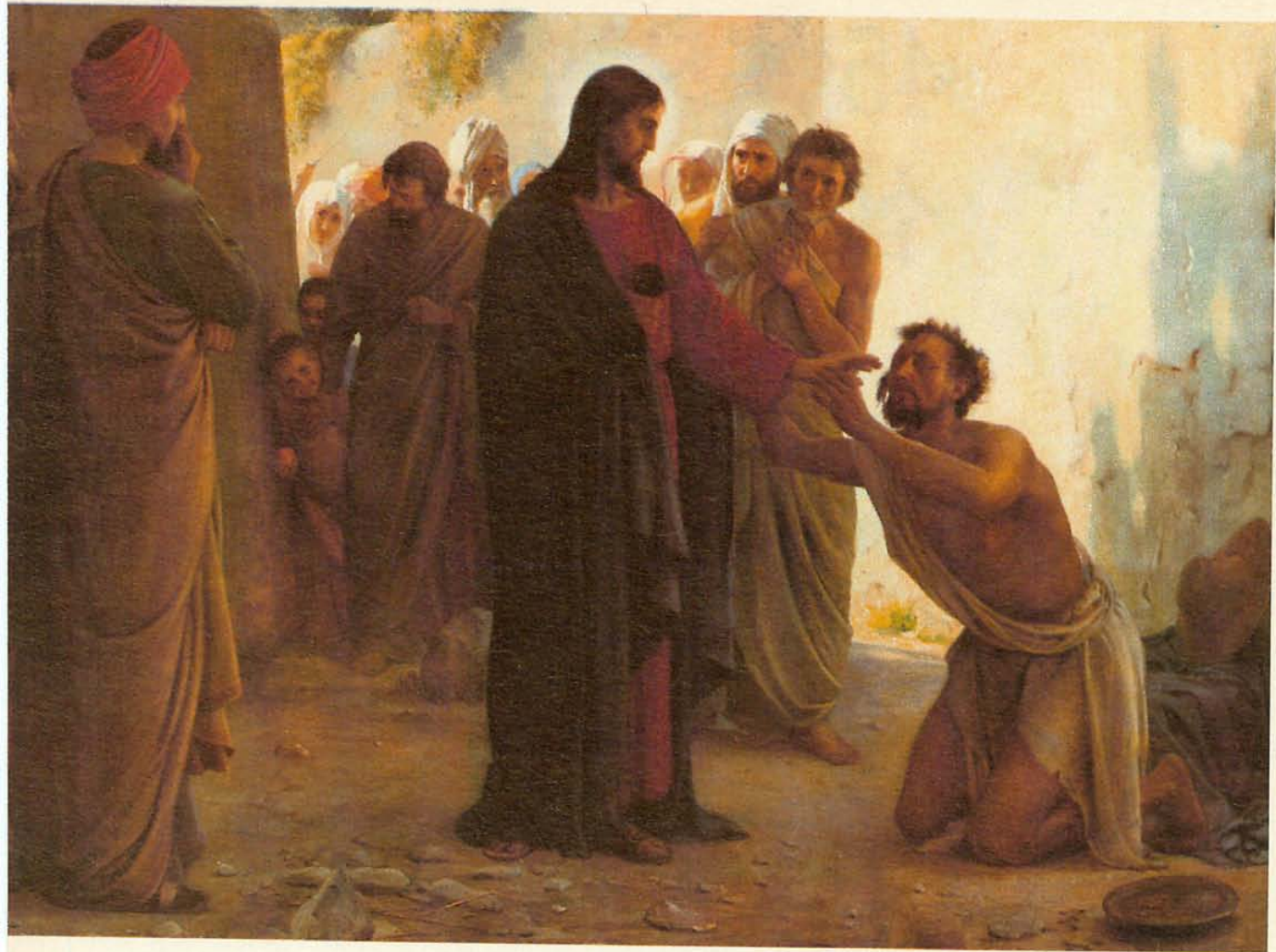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주시라”(요한복음 21:7) 하고 소리쳤습니다.

천사는 그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사도행전 1:11)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 역시 그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또 이 어린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으며, 우리에게 항상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분의 은사인 속죄의 희생과 부활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위해 불사 불멸과 영생의 문이 열렸다.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76:22~24)

이 간증들에 덧붙여 우리도 그분에 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여호와이시며, 자신을 낮추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사방을 다니시며 선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어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위대한 속죄를 이루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며, 조력자요, 친구이십니다.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 불사 불멸과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축복된 절기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대로 항상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기 바랍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성탄 절기에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경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2.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는 계명이다.
3. 우리가 성탄 절기에 경전에서 읽는 아기 예수는 살아 계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며, 오늘날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45년 동안의 십일조 계정



버논 엘 힐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선교부의 리차드 윈더 선교부장께서 내게 주신 “몰몬 선교부 귀하” 라고만 적힌 편지를 건네 받았을 때, 나는 그 봉투 위에 체코의 작은 도시인 체스카 트레보바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음을 보았다. 그 곳은 지난 1948년 내가 젊었을 적에 선교사로 봉사한 지역이었다. 이제 그로부터 45년이 지났다. 나는 지금 다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보헤미아에 있다.

체스카 트레보바라는 지명을 보고 나는 당시 그 마을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던 루카소바 자매를 떠올리게 되었다. 1948년, 그녀는 선교사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와 줄 것을 요청했다. 나의 동반자와 나는 체스카 트레보바에서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루카소바 자매는 우리가 몇몇 비공식 모임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경찰이 우리가 가지려는 모임 중에 하나를 방해하고, 우리를 심하게 다루었을 때, 선교부장님께서서는 우리를 다시 프라하로 돌아오도록 하셨다. 그 후 루카소바 자매의 교회와의 접촉은 단절되었다.

“루카소바 자매님은 지금쯤은 돌아가셨을거야”라고 생각하며 나는 봉투를 열어 보았다. 그런 다음 나는 다음과 같이 쓰인 편지를 읽었다.

“저의 숙모님은 1930년 이래로 귀 교회의 회원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87세로 건강이 좋지 못하십니다. 숙모님은 1948년에 이곳에서 두 명의 선교사, 즉 글라우서 장로님과 힐 장로님이 봉사하셨던 이후로 귀 교회와의 접촉이 끊겼습니다. 숙모님에게 귀 교회에서 누군가를 보내 주실 수 있을는지요? 숙모께서 그것에 대해 많은 감사를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윈더 선교부장은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이 편지가 장로님에게 특별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명의 젊은 장로들이 체스카 트레보바까지 함께 동행했다. 밝은 에이프린을 입은 루카소바 자매는 수수한 그녀의 집에서, 나이 들어 점잖고 조용한 모습으로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썹은 여전히 새까맣고, 그녀의 눈은 명랑하고 친절하며 이해심으로 빛났다.

우리는 서로 껴안으며 인사를 한 다음, 서로의 생각과 지난 기억들을 오랫동안 이야기하였다. 루카소바 자매는 지금까지도 45년 전의 나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조카 딸에게 무엇인가를 가져오게 하였다. 조카 딸은 작은 책자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녀는 그것을 나에게 건네 주며 이렇게 말했다. “자, 이것을 받으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 책이 예금 통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저의 십일조입니다.”라고 루카소바 자매는 말했다.

그것을 잠깐 넘겨보면서, 나는 매월 부었던 적립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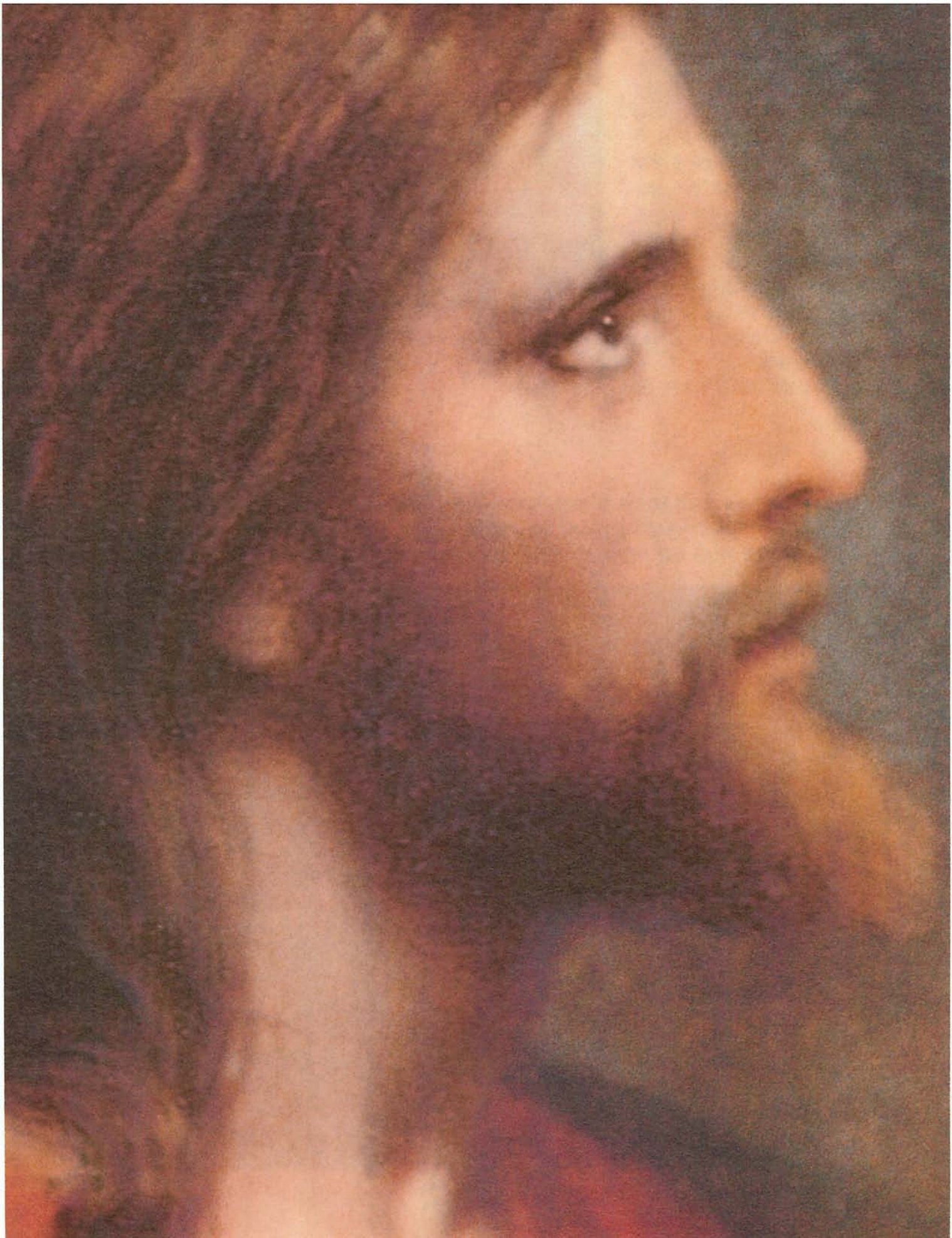


1948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 예금 계정은 병과 외로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거의 50여년 동안 충실하게 순종해 왔음을 보여 주었다. 오직 간증과 영으로써, 루카소바 자매는 십일조를 바칠 것을 약속한 자신의 침례 성약을 지켜왔던 것이다.

우리는 그녀를 위해 성찬식을 가졌으며, 그녀의 강한 간증을 들었다. 그런 후에 우리는 곧 돌아왔다. 최근에 루카소바 자매는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에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그녀는 지금도 영원히 자신의 생을 축복해 줄 보화를 쌓고 있다. □

왼쪽: 1993년 루카소바 자매와 버논 엘 힐 형제는 루카소바 자매가 간직해 온 젊은 선교사로 봉사하던 때의 한 형제의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추억에 잠겼다. 아래: 더 이상 교회 회원들로부터 고립되지 않은 루카소바 자매는 일단의 체코 성도들과 함께 1994년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에 참석했다.(루카소바 자매는 오른쪽에서 둘째번에 앉아 있음.)





참된 신자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참된 신자는 경전에서
구세주의 말씀을 찾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성의
중심을 구세주에게 두고 있어,
모든 사물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일 부 문화권에서는 참된 신자라는 말이 “광신자”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 전에 엘마와 사도 니파이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정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엘마서 46:14; 니파이사서 1:36~37)

물론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참된 신자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구세주와 이웃, 그리고 동료들에게 보여 주는 사랑으로 인해 누가 주님의 제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세주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들의 안목이 그리스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약점이 있지만, 그들의 영성의 중심을 구세주에 두고 있어, 그들은 모든 사물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신들의 의무를 기쁘게 수행합니다. 대체로 이 의무는 중요하나 비교적 수월한 것들입니다.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봉사를 하며,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의식을 받고,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행하고, 십일조와 헌물을 내고, 선교 사업과 가족 역

사 사업을 행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며,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이러한 의무에 포함됩니다. 참된 신자들은 자신들이 기본적인 계명들을 지킴에 있어 이러한 일들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겸손합니다. 그들은 “은유하며 마음이 낮아”져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은유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었던 모세와 같이 “전에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모로나이서 7:44; 모세서 1:7~11; 민수기 12:3 참조) 그들은 쉽게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고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 회원으로서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갖는 일상적인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고 여기지도 않으며, “전에 자신들이 그러한 일을 하였다” 하여 그러한 책임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왕국에서의 일상적인 일들을 회피한다면 어찌 우리가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기꺼이 행합니다. 한 청년이 구세주를 찾아와 자신은 어렸을 적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구체적인 목표, 곧 가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준 후에 나와 나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신들의 의무를 기쁘게 수행한다. 또한 참된 신자들은 자신들이 기본적인 계명들을 지킴에 있어 이러한 일들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

를 따르라는 목표를 주었습니다. 품위가 있는 이 훌륭한 청년은 슬픔에 잠겨 종종히 사라졌습니다. 주어진 목표를 그대로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분명히 예수를 찬양하는 사람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0:21~22 참조) 만일 우리가 주어진 목표들을 회피한다면, 우리 또한 참된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세계로 인도하도록 자신을 기꺼이 그분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넓혀 주는 일들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전향적인 자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균형 잡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상에서의 만족감과 앞으로의 더욱 중요한 부름에 대한 소망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만족해야 하리라. 어찌 내가 부름으로 내게 명하신 일보다 더 많이 일하려 하겠느냐?” (엘마서 29:3, 6) 현재의 기회를

활용하여 더 큰 만족감을 얻는 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무시할 때와 마찬가지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참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진지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너는……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였기에, 구하는 것과 더불어 인내, 신앙 및 참된 의도를 가지고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합니다. (교리와 성약 9:7~8 참조) 참된 신자의 기도는 항상은 아니더라도 때때로 영감을 줍니다.

참된 신자는 올바른 행동을 하며 그 올바른 행동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의 관계가 확고하여 그들을 바라보는 이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선행을 할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들을 나쁘게 말하고, 잘못 평가하며, 냉대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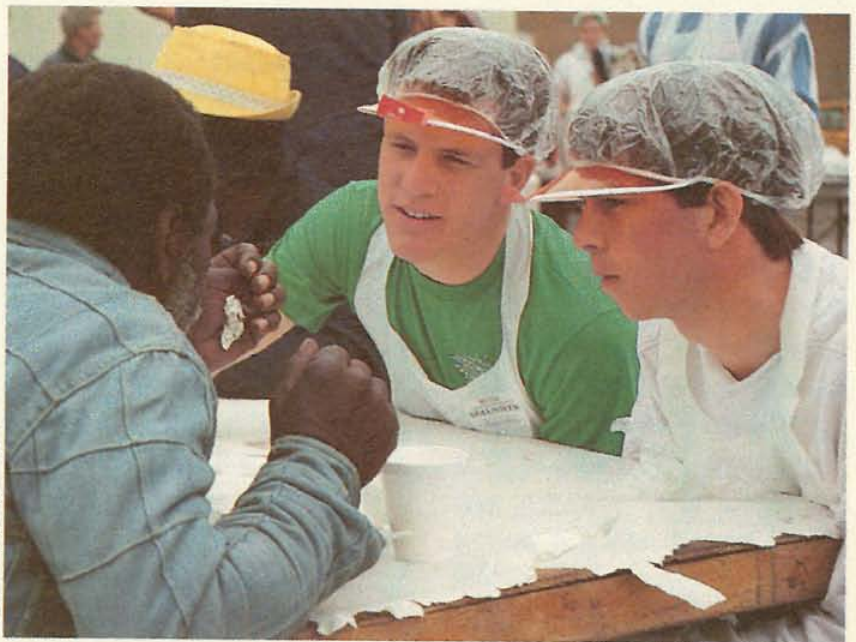


사진 촬영: 케틀린 세노프 알렌



사진 촬영 엘트 렌더슨

참된 신자는 행복하다. 참된 신자는 죄를 짓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것은 아니다. 참된 신자는 올바른 행동을 하며 정당한 이유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바라보는 이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선행을 할 것이다.

참된 신자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들을 능가할 때, 참된 신자는 그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찬사를 보냅니다. 그들은 동료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잇는 것이 용서하는 것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모범을 따릅니다. 참된 신자는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도와주며 주님과 같이, 그들이 과거에 자신들에게 행한 실수를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에스겔 18:22 참조)

참된 신자는 죄에 대해 결백하지만 우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친절하나 공정합니다. 그들은 동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으로써 하늘의 힘을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행복합니다. 슬픈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는 의로움을 이루고자 하는 열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나,

활기차게 행동합니다. 그들의 유머는 냉소와 절망이 있는 공허한 웃음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고상한 유머입니다. 그들은 조용하며 하늘에 의지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낙담하지 않고도 시대의 표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자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니파이서서 31:20)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참된 신자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딛고 의롭게, 단호하게 우리의 길을 나아가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성으로 감시다. 바로 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문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곳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그분의 깊고 신성한 소망으로 인해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친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그분께서는 그때에 우리를 사랑스럽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일을 곧 겪게 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여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준비된 세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가 되는 길을 부지런히 따라가 영적으로 발전하기를 간구합니다. □



프러미그리에는 영혼을 기





사진 왼쪽 마빈 케이 가드너. 오른쪽 및 아래쪽 카리나 라고썬



위의 왼쪽: 부다페스트를 관통하여 흐르는 다뉴브강.
 위의 오른쪽: 새로 출판된 헝가리어 몰몬경을 전해 받은 페이츠시 회원들.
 아래: 자신들의 몰몬경을 들고 있는 마야 발레리아와 소보 에르제베트.

헝가리 국민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제프리 에스 맥클란

1991년의 크리스마스가 옛 새박에 남지 않았다. 일기 예보에 따르면 동유럽 지역에는 눈이 올 것이고 도로 사정 역시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행을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요하네스 구트야 형제에게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 하나 있었다. 전해야 할 많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독일의 프레드리히도르프에 사는 구트야 형제는 교회 번역사로서 여러 달 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선교부의 제임스 엘 월드 선교부장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바로 오랫동안 학수 고대하던 헝가리어로 된 몰몬경이 독일에 도착하면 바로 가능한 한 많은 몰몬경을 자신의 차에 가득 싣고 헝가리로 가져 가겠다는 것이었다. 조상 중에 헝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헝가리인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구트야 형제는 목요일 오후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헝가리 세관이 크리스마스 휴가로 인해 문을 닫는 금요일 이전에 새로 나온 몰몬경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다. 구트야 형제와

월드 선교부장은 헝가리 성도들이 결코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지금 헝가리 성도들이 상상도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이 오고 있는 중이었다. 월드 선교부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또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에게도 헝가리어판 몰몬경의 출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다.

애초에 구트야 형제는 이 여행을 9월 중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트야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9월이 되어도 몰몬경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다림이 생소한 것은 아니었다. 헝가리 성도들은 이미 오랫동안 헝가리어판 몰몬경의 출판을 학수 고대해 왔기 때문이었다. 1990년 2월에 선교 사업을 시작한 빅터 시포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헝가리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만 있으면 우리도 우리 말로 된 몰몬경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러나 바로 그 '몇 달만 있으면'이 항상 '조금씩 늦어지곤' 하였습니다."

교회가 헝가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지 3년 반이 지나고 또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선교부가 개설되고 거의 일년 반이 지난 "1991년 크리스마스"가 되어서야 몰몬경이 드디어 도착하였다. 그것은 무척이나 오랜 기다림이었다.

83년 동안 간직해 온 꿈

헝가리어로 된 몰몬경에 대한 소망은 헝가리 최초의 회원이 침례를 받은 1980년대 후반보다 훨씬 이전에 헝가리 성도들이 품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망은 적어도 83년 동안 간직해 온 것이었다.

1908년 크리스마스(몰몬경이 출판되기 83년 전의 크리스마스) 직후에 유타주 로간 출신의 존 앤사인 힐 장로는 헝가리어를 배워 헝가리어로 복음을 가르치는 첫번째 말일 성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봉사를 시작하였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힐 장로는 복음 전도용 소책자를 번역하였고, 헝가리어를 사용하여 최초의 교회 모임을 사회하였으며 헝가리어로 최초의 침례를 주었다. 1910년 11월에 힐 장로와 그의 헝가리인 친구는 자신의 선교 사업 기간 동안 몰몬경을 번역하겠다는 힐

장로의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진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100쪽 정도 번역을 마쳤을 때, 선교 부장은 그들에게 작업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당시의 일을 힐 장로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 인생의 반이 날아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곧 힐 장로는 귀환하였다. 약 4년이 지난 1914년에 마지막 선교사가 헝가리를 떠나고 제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었다. 1987년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헝가리 국토를 복음 전도를 위해 헌납하기 이전에는, 외국에 있던 극소수의 헝가리인들만이 침례를 받는 상태였으며 몰몬경도 일부분만이 헝가리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하지만 헝가리 국내에서는 더 이상 선교 사업이 행하여지지 않았으며, 몰몬경 전체를 헝가리어로 번역하는 일도 진전을 보

이지 못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 선교사들이 다시 헝가리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자, 그들도 오래 전에 힐 장로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자료의 부족이었다. 몰몬경에서의 몇몇 발췌문 이외에, 50쪽도 되지 않는 찬송가와 복음 원리와 같은 지극히 기본적인 소수의 자료만이 헝가리어로 준비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완전한 몰몬경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에 있는 많은 회원들은 커다란 신앙을 통하여 몰몬경에 대한 강한 간증을 얻을 수 있었다.

구트야 형제의 크리스마스 여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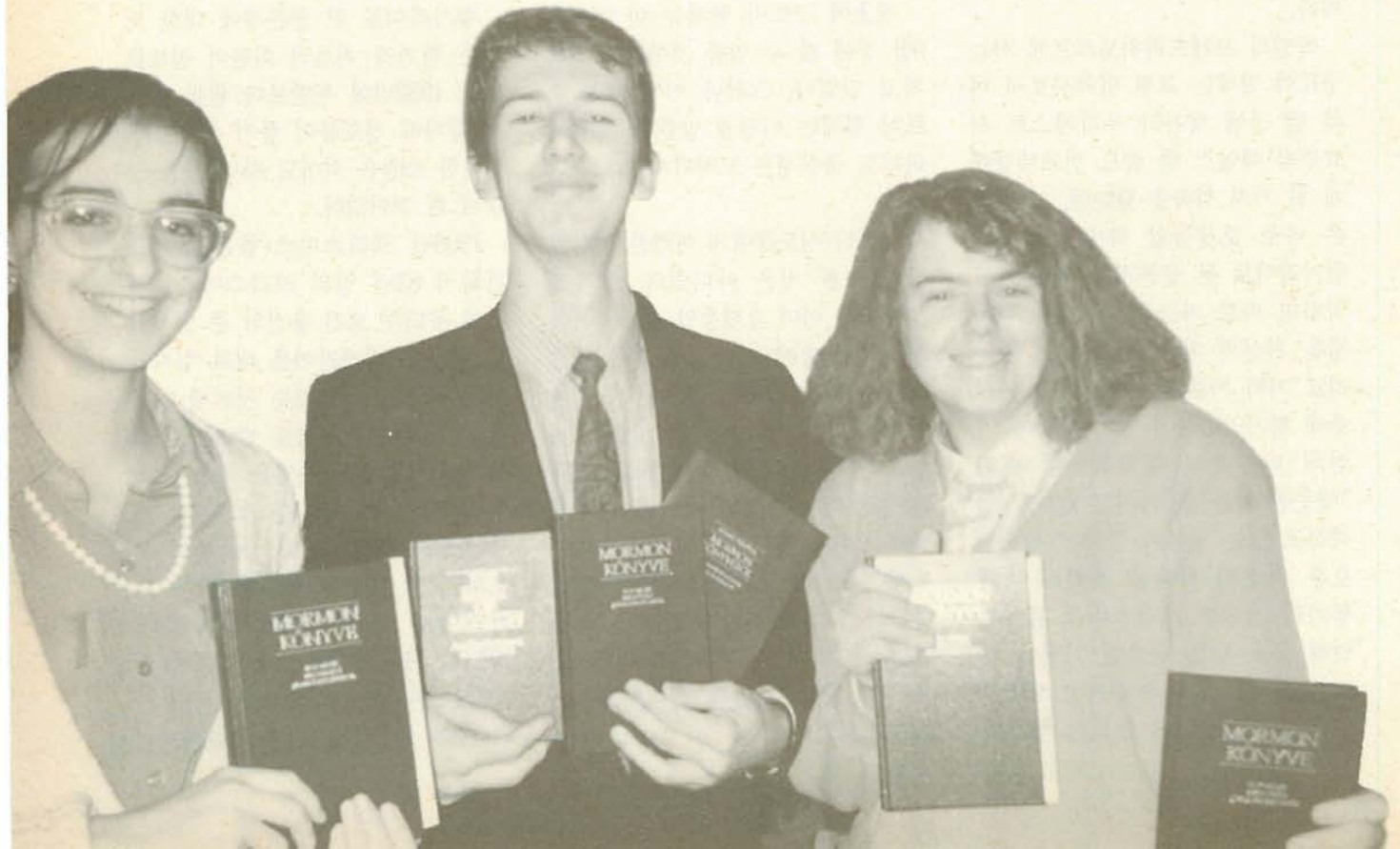
헝가리의 교회 회원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내

었다. 마침내 몰몬경이 헝가리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이제 독일을 출발, 오스트리아를 거쳐 헝가리에 이르는 약 천 킬로미터를 여행하여 몰몬경을 전달하는 일이 구트야 형제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었다.

목요일 오후 3시경, 구트야 형제는 새로 출판된 헝가리어판 몰몬경 1,600부를 승합차에 싣고 여행을 시작하였다. 오스트리아 국경을 오후 9시경에 통과하고, 다음날 새벽 3시에 헝가리 국경을 통과한 구트야 형제는 금요일 아침 일찍 예정대로 저어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정작 여기사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헝가리 국경에서 정부 관리들이

자신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몰몬경을 자랑스럽게 보여 주고 있는 바르보츠 노라, 카자크 타마스, 페기베르네기 아그네스(왼쪽에서부터)



구트야 형제에게 저어시에서 세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주었으나 정작 저어시의 세관원들은 통관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었다. 저어시에서 봉사하는 두 명의 선교사들과 노력해 보았지만 어떻게 해 보지도 못하고 몇 시간이 지난 이른 오후에 구트야 형제는 부다페스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고 그 곳으로 차를 몰았다. 그러나 바라던 도움은 바로 오지 않았다.

설상 가상으로 일기 예보대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로 가는 도중에는 눈이 전혀 내리지 않았습시다.”라고 구트야 형제는 회상한다. “그러나 저어시에서 부다페스트 사이, 특히 고속도로(아우토반)에는 눈이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내리지는 않았으나 교통을 방해하기에 충분할 만큼 내리는 폭설과 싸우며 구트야 형제는 부다페스트를 향하여 갔으나 그는 그 곳에서 두 번째 곤경을 겪어야 했다. 선교부 사무실에 도착한 것은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난 때였으며 장기간의 크리스마스 휴가가 시작되는 금요일이었다. 세관이 새해 1월까지의 문을 닫을 것이 확실하였다.

다행스럽게도 구트야 형제가 도착하였을 때, 시포스 장로와 그의 동반자 쿤 다미아노 장로가 선교부 사무실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다페스트에서 지구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던 두 선교사는 구트야 형제를 도와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몰몬경을 배부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세관에 가서 한 세관원에게 어떻게 하면 통관할 수 있는지를 묻자, “절대로 통관을 할 수 없습니다. 내년 1월에 다시 오십시오.”라는 대답밖에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년 1월이면 크리스마스가 끝난 다음이 아닌가! 미국 유타주 모간 출신이기는 하지만 헝가리에서 태어나 부모님 밑에서 헝가리어를 배우고 말하며 자란 시포스 장로는 계속 세관원을 설득하였다. 또 시포스 장로는 상황을 그에게 설명하고 이 책들은 종교 서적이며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람들이 이 책을 크리스마스 때까지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책이 나오기를 수십 년 동안 학수 고대해 왔습니다.”라고 시포스 장로는 말하였다.

세관원은 계속 안된다고 말하였으나 선교사들은 “마음속으로 수많은 기도를 드리며” 이번 경우를 예외로 해줄 것을 거듭하여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세관원이 마음을 바꾸었다. “결국에는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라고 시포스 장로는 그때를 회상한다. “그 관리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통관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포스 장로는 어떤 말을 하여 세관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확신을 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 관리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데에는 어떤 다른 무엇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바로 영이 그러한 변화를 가져 온 것 같습니다.”

시포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까지의 조금해 하던 태도를 바꾸어 그 관리의 선교사들이 책을 배부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책의 운송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제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1,600부의 몰몬경을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전달함으로써 구트야 형제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몰몬경을 회원들이 정규적으로 모이는 다른 10개 도시에 배부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회원들이 이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크리스마스 3일 전인 일요일에 받을 수 있도록 몰몬경을 배부하기 위해 남아 있는 시간은 하루로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금요일 저녁, 선교사는 호텔 주차장에서 구트야 형제를 만나 그들의 차에 몰몬경을 싣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 일요일 교회 모임에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될 다른 선교사들에게 몰몬경을 전달하였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크리스마스 선물

시포스 장로와 다미아노 장로도 다른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차에 몰몬경을 싣고 이를 다른 도시로 배달하였다. 그들의 마지막 기착지 중의 하나가 헝가리 동부의 테브레첸이었는데, 두 장로는 그곳에서 12월 22일 일요일의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그곳에 머물렀다. 시포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그곳 테브레첸 지부에서의 반응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공산당이 통치하던 시기에 헝가리를 탈출하여 침례를 받고 다시 선교사로서 고국에 돌아온 헝가리인인 이슈트반 베렌테 장로가 직접 몰몬경의 출판 소식을 전하였다. 당시에 테브레첸에서 봉사하던 카리나 라고 쾨 자매 선교사는 그가 지부 회원들에게 예언자의 중요성에 대해, 특히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몰몬경을 읽으라는 벤슨 대관장의 메시지를 강조한 뒤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그 책을 읽

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은 헝가리어로 된 몰몬경을 회원들에게 전해 주기 시작하였다.

“회원들의 반응은 대단하였습니다.”라고 시포스 장로는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울기까지 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습니다.”

라고선 자매는 사람들이 이내 조용해져서 몰몬경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몬경을 보지도 못하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몰몬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 책이 더욱더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몇 시간 동안이나 데브레첸 지부의 회원들은 예배당을 떠날 수가 없었다. 회원들은 선교사들로부터 들은 적은 있었으나, 스스로 읽어 볼 수는 없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쉴 새 없이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갓 출판된 헝가리어판 몰몬경에 서로서로 자신들의 이름과 간증을 적어 넣었다.

“오늘은 정말이지 말로 다할 수 없이 기쁜 날입니다.”라고 크랄릭 자매는 라고선 자매의 몰몬경에 적었다. “나는 정말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시포스 장로의 몰몬경에 페기베르네키 자매는 이렇게 적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몰몬경은 이제까지 제가 받은 선물 중 가장 훌륭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이 책은 가장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라고 라고선 자매는 말한다.

다른 곳의 회원들이 보인 반응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어떤 곳에서는 회원들이 몰몬경을 가슴에 꼭껴안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몰몬경을 정말 오랫동안 학수 고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월드 선교부장은 말한다. “사실 영어나 독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몇몇 회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헝가리 회원들은 몰몬경의 일부 발췌본만을 읽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엘마 2세의 개심 이야기나 암몬의 선교 사업, 또한 그 밖의 다른 이야기들을 완전히 번역된 몰몬경에서 읽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이야기만을 읽는 데만 회원들이 신경을 쓴 것은 아니었다. 세케스페헤르바 지부의 몰렉 울리아나 자매는 책을 받은 첫 주에 몰몬경을 두세 번이나 읽었다고 시포스 장로는 말하였다. 솜보트헤어의 타카스 가보어 형제 또한 자신의 지부의 한 자매가 이틀간의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중에 몰몬경을 전부 읽었다고 말하였다.

헝가리 남부에 위치한 페이츠시에서는, 몰몬경을 받은 후의 첫번째 주일학교 공과의 주제가 니파이일서 8장에 있는 리하이의 꿈이었는데 이 이야기는 몰몬경 발췌본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회원들은 이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라고 브라이언 블립 장로는 말한다. “그들은 그 꿈을 칠판에 그렸습니다.”

페이츠시에서는 몰몬경이 크리스마스 특별 가정의 밤에서 전달되었다. 블립 장로는 특별히 그 당시 세달 전에 침례를 받았던 세츠 크리스티나 자매의 반응을 전하여 주었다. “그녀는 일어나지 않고 앉아만 있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때 저는 그녀가 받은 몰몬경을 가지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의

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내려다보니 그녀는 몰몬경의 여러 부분을 읽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베스프렘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레드먼드 워싱턴의 마이클 마티아스 장로는 자신이 전해 준 첫번째 몰몬경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그 책을 회원이 된 지 여섯 달된 피트 에바 자매에게 주었다. 모임에 참석하고 있던 피트 자매는 몰몬경 출판 소식이 발표되기 전에 나가야만 하였다. “제가 그녀를 멈추어 세우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자매님이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기 전에 제가 자매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몬경 한 권을 그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님은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의 몰몬경이 제가 전달한 최초의 몰몬경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부다페스트의 쿠코라 산도르 형제 또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한 권의 책으로 된 몰몬경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새로 태어나 다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로 그린 완전한 그림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월드 선교부장은 말한다. “제가 지닌 감동적인 기억 중의 하나는 2년 동안 교회 회원으로 있다가 몰몬경을 직접 보게 된 한 자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자매는 몰몬경을 가슴에 꼭껴안고 너무 기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1908년에 힐 장로가 시작한 긴 여행이 이제 막을 내렸다. 드디어 헝가리어로 된 몰몬경이 오랫동안 충실하게 기다렸던 헝가리 교회 회원들의 품에 안긴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헝가리 회원들은 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테브레첸 지부의 소보네스 자매가 시포스 장로의 물몬경에 적은 글씨가 물몬경의 번역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저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정말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 크리스마스에 받은 물몬경을 우리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라고 타카스 형제는 말한다. “이제 그 책이 오래 되고 또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낡기는 했습니다. 지금 새 물몬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최초로 받은 물몬경을 가장

헝가리 최초로 복음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나지 에리카와 베르나데트(오른쪽)가 헝가리어로 된 물몬경을 나누어 주고 있다.

좋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가장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라고 부다페스트의 헤베시 안드라스 형제는 말한다.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헤베시 형제와 마찬가지로 헝가리 성도들에게는 헝가리어로 된 물몬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꿈의 실현이었다. 물몬경을 전달하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구트야 형제는 크리스마스 절기에 선물을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1991년 크리스마스 여행이 끝나고 얼마 후 구트야 형제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청년이 버스에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러한 모습이 중부 유럽이나 동부 유럽에서는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보고 있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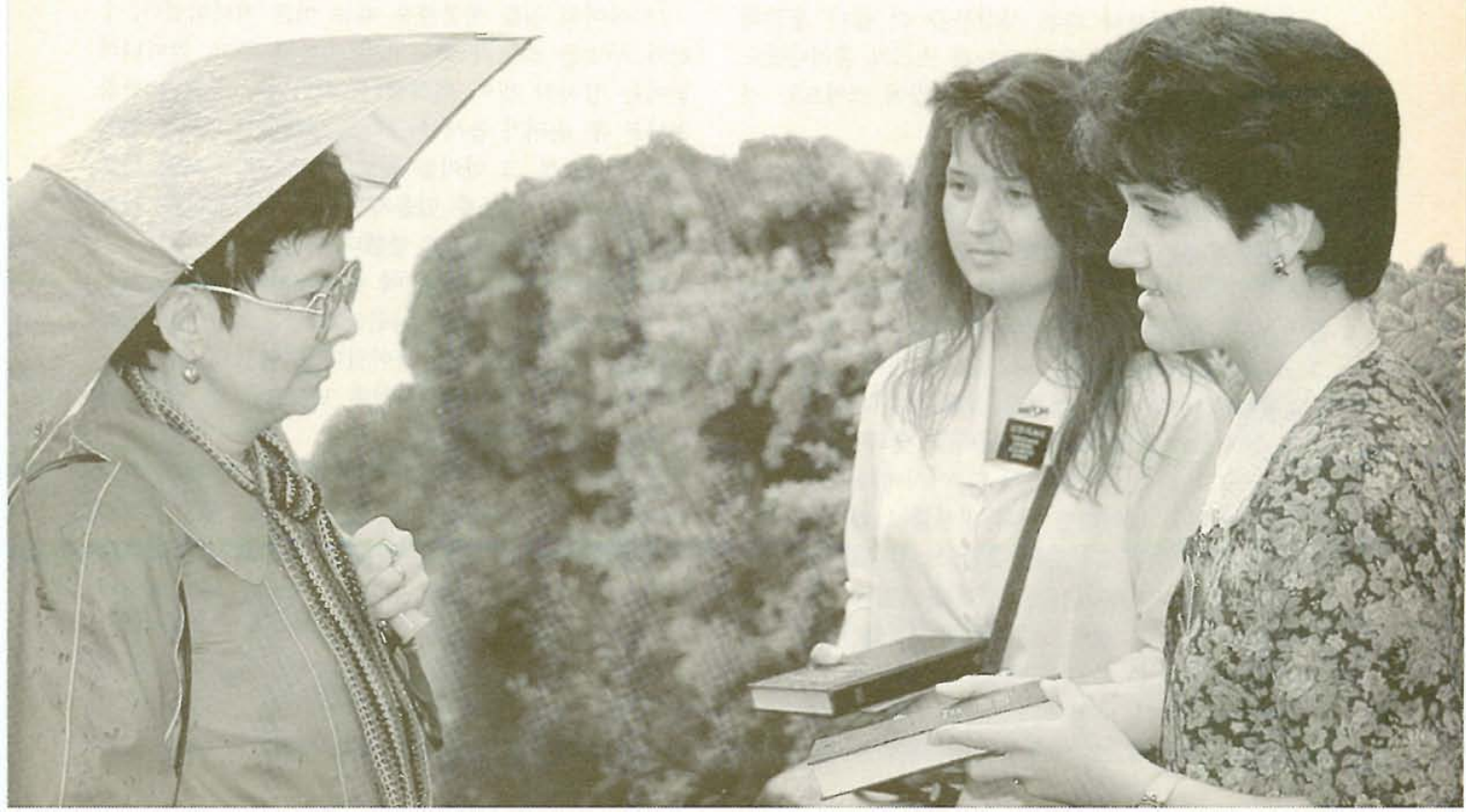
은 낡기는 하였어도 깨끗이 사용된 흔적이 역력하였다. 좀더 가까이 가서 보았을 때, 구트야 형제는 깜짝 놀랐다. 다 낡아빠진 파란색 표지에는 물몬 *코베* 즉 헝가리어로 “물몬경”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 당시 구트야 형제는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다시 맛볼 수 있었다. 구트야 형제가 일년 전에 전해 준 크리스마스 선물이 여전히 기쁨을 전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

주

1. 힐 장로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서적에서 인용되었다. 존 엔사인 힐 : *일기 및 전기 자료, 아이비 후퍼 블러드 편집*(로간, 유타: 제이 피스미스 앤드 선, 1962)

2. 이 기사에서 헝가리 사람들의 이름은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뒤에 쓰는 헝가리 전통에 따라 기술하였다.



왜 날 깨우지 않았죠?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칠십인 정원회

통가에서 선교 사업을 했던 젊은 시절, 나는 그 곳에서 세 번의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통가의 크리스마스는 일년 중 가장 무덥고 습기가 많은 계절에 들어 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영은 겨울이 크리스마스인 나의 고향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해주었고, 이곳 저곳에서 음악과 노래 소리가 흘러나왔으며, 화평스런 느낌과 즐거움이 모든 것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서로 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으로 선물을 주고 받는 일은 드물었지만 사람들은 사랑과 봉사와 친절이라는 훌륭한 선물을 서로 주고 받았다.

크리스마스 며칠 전,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방문하러 왔던 아홉 살 난 소녀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 소녀의 조부모는 모든 시간을 다 바쳐 그 아이를 간호했지만, 몸의 열은 더욱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은 손녀에게 병자 축복을 해주도록 선교사들에게 부탁했다. 우리가 축복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라는 영의 지시를 느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도 고양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하여 다른 일들을 수행해 나갔다.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그 지역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 한 분과 함께 여러 가족들을 방문하였다. 우리가 방문을 다 마칠 때쯤, 나는 그에게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밖에 또 방문해야 할 곳이 없는

지 물었다. 그는 며칠 전의 그 소녀가 아직도 많이 아프고 할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가셨다고 들었다면서, “할머니가 아주 피곤하실테니까 오늘 저녁 그 집을 방문해서 아이를 돌보아 주고 할머니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줍시다.”라고 제안했다. 참 훌륭한 생각이야! 왜 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 아이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이른 저녁이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설명해 주자, 할머니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역력했다. 할머니는 우리를 한참 쳐다본 후 손녀가 몹시 아프다고 말하였다. “지난 삼일 동안 밤낮으로 그 아이를 돌보았어요. 내가 오늘 하룻밤도 그 애를 돌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여태까지 수건에 물을 적시고 그녀의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부채로 시원하게 부쳤으나 이를 동안 손녀는 신음 소리만 낼 뿐이었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손녀가 나올 수 있을지 확실히 모르므로 밤 늦게까지 우리를 돕겠다고 말했다.

내 동반자는 할머니에게 그러실 필요가 없고, 기서 쉬시라고 했다. 우리가 아이에게 부채로 열을 식히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서 좀 주무세요.”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마침내 자리에서 떠났다. 나는 할머니가 방으로 가서서 곧 잠이 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즉시 부채를 부치며 이마의 열을 식히기 시작했다. 아이는 아주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았다. 그 아이의 숨소리는 이상했고 열은 높았으며, 눈을 감은



채 있었으며, 신음 소리는 가슴 아프고 축은하게 들렸다.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젖은 수건을 잡고 있으면 다른 한 사람은 거기에 부채를 부쳐서 습한 공기를 아이의 입과 머리 주변에 쏘이게 하는 것이었다.

별 일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물을 가져 오고, 수건을 적시고, 계속해서 부채를 부치는 일을 하느라고 우리 둘 다 곧 지치게 되었다. 나는 할머니가 지난 이틀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있던 곳에 오래된 태엽 시계가 있었다. 그 시계는 밤 열한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는 밤을 새워 간호를 하려면 무언가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거라고 생각했다. 동반자는 다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

“우리가 교대로 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했다. “장로님이 먼저 한 시간 수면을 취하고 그러고 난 후 저를 깨우면, 장로님은 한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고, 제가 그 사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밤을 지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누가 먼저 시작할지 물었다. “저부터 먼저 할테니 장로님이 먼저 쉬시죠.”라고 동반자가 말했다. 밤 12시가 되어서 그가 나를 깨웠고, 나는 1시까지 한 손으로는 부채를 부치고 한 손으로는 수건을 물에 적셔서 그녀의 이마를 닦아 내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를 깨웠으며, 그도 2시에 다시 나를 깨웠다. 다음 내 차례가 4시이므로 그가 나를 깨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몹시 피곤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룻밤 동안 잘 해낼 것일라고 생각했다.

내가 기억하는 다음 일은 내 눈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나 “오, 도대체! 지금 몇 시지?”하고 놀라서 외쳤다. “6시, 오, 6시야! 왜 4시에 날 깨우지 않았죠?” 동반자에게 물었다.

그는 만면에 미소를 가득 띠고 있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와서 그의 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다. “너무 피곤해 보여서 계속 자게 그냥 두었죠. 그게 장로님께 드리는 저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왜 그러한 생각을 먼저 하지 못했을까?”하고 다시 생각해 보았다. 내 동반자는 날 위해 밤을 새웠던 것이다! 주님께서 잠자고 있던 그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마태복음 26:40) 주님과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 그분은 하룻밤 동안 온 세상이 영원

히 기억할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이다.

나는 약간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으나 내 동반자의 얼굴에 깃든 기쁜 표정을 볼 수 있어서 나 역시 행복했다.

그는 나에게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다. 그에겐 나에게 줄 물건이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줌으로써 그가 줄 수 있는 것을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주었던 것이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때와 그리고 다른 선물을 줄 때 단순히 물건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닌, 우리들 자신을 온전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바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진정으로 베푸는 것은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지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른 아침 언젠가부터 그 아이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는 그쳤고, 열은 떨어졌으며, 우리는 위기를 넘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아이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우리는 아침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할머니 방문을 노크했다. 할머니는 얼른 나오셨는데, 아마도 최악의 사태까지 왔구나 생각하셨던 모양이었다. 할머니가 현관으로 나오실 때에, 손녀는 우리와 함께 바로 거기에 서 있었다. 우리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메리 크리스마스!” □

성도의 벗 1994년 색인

본 색인은 주제 색인과 저자 색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제 색인

┌

가르침

가르침의 순간, 메리 모릴, 4월, 24쪽
 나 자신보다 더 큰 어떤 힘, 카산드라
 린 트사이, 5월, 9쪽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골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엠 러셀
 벨라드, 미셸린 피 그레슬리, 10월, 35쪽
 내가 가르칠 차례야, 웨인 바커, 3월, 44쪽
 모든 사람이 참여함, 브렌트 에이
 바로우, 8월, 18쪽
 십대 청소년의 지도, 테브라 래시, 10월,
 24쪽
 어린이들이 교묘하고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움, 시테리 워너와 수잔
 엘 워너, 8월, 26쪽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도록 가르침, 루스 비 라이트,
 7월, 84쪽
 자녀들의 특별한 신분, 멀린 알, 리버트,
 7월, 31쪽
 자녀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벤 비
 벅크스, 1월, 28쪽
 청소년이 성적인 순결을 선택하도록
 도와줌, 조이 샌더슨 린드버그, 5월, 18쪽
 최고의 교사, 웬디 에번즈 우디, 9월, 46쪽

가장 복음 교육

“그 자매님이 오늘 나오실 줄 알았어요”,
 올레 엠 스미스, 8월, 8쪽

가정의 밤

“나는... 배웠고”, 엘 톱 페리, 7월, 36쪽

가족 관계(부모의 역할 참조)

감사함, 애드니 와이 고마쯔, 1월, 30쪽
 구세주께로부터 나오는 힘, 지에코 엔
 오카자키, 1월, 94쪽
 기운을 내어, 진 이노우에, 1월, 96쪽
 다 같이 하나되어, 리차드 엠 롬니, 4월,
 38쪽
 다양성을 통한 평등, 엠 러셀 벨라드,
 1월, 89쪽
 “나는... 배웠고”, 엘 톱 페리, 7월, 36쪽
 “네 가족을 특별히 돌볼지이다”, 닐
 에이 맥스웰, 7월, 88쪽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 에즈라 태프트
 벤슨, 2월, 2쪽
 아버지, 고맙습니다, 즐리앙 다이크,
 10월, 44쪽
 아버지와 가족, 보이드 케이 패커, 7월, 19쪽
 아버의 날, 미셸 브럼 올리버, 8월,
 어린이란 12쪽

어떻게 하면 저희 가족들을 단합시킬 수
 있을까요?, 6월, 20쪽
 오염된 환경에서 자녀를 키움, 조제이
 크리스텐슨, 1월, 11쪽
 와드/지부 가족: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일부,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1월, 79쪽
 자녀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로버트 디 헤일즈, 1월, 8쪽
 자녀를 빛과 의로움 안에서 키우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 54쪽
 자녀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벤 비
 벅크스, 1월, 28쪽

가족 역사(성전 및 성전 사업 참조)

개보 사업 일백 년, 레베카 엠 테일러,
 11월, 어린이란 4쪽
 신앙의 열서, 토마스 에스 몬슨, 5월, 2쪽
 중국에서 온 보물, 제니 웨일러, 4월, 8쪽

간증(개심, 신앙 참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다, 11월, 48쪽
 나의 간증, 고든 비 힝클리, 1월, 51쪽
 노래 가사, 페이지 매리엇, 4월, 33쪽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캐럴린
 존스톤, 6월, 34쪽
 선교 사업-우리의 책임, 데이비드 이
 헤이트, 1월, 61쪽
 시험을 받은 후에 얻은 간증, 윌리엄 지
 다이어, 9월, 20쪽
 영원한 시각,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1월, 44쪽
 영적인 지식을 얻음, 리차드 지 스코트,
 1월 86쪽
 영혼의 닻, 엠 러셀 벨라드, 9월, 40쪽
 온 마음을 다하여, 셋 에이치 보일, 8월, 44쪽
 우리의 주 구세주, 조셉 비 위스틴, 1월,
 5쪽
 자신의 간증, 글렌 엘 페이스, 3월, 62쪽
 진정한 간증, 리네트 버크 해일, 5월,
 54쪽
 티칼의 신전과 간증, 마빈 케이 가드너,
 9월, 34쪽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 아만다
 민스, 3월, 33쪽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
 제프리 알 홀런드, 1월, 13쪽

감사

감사의 마음, 캐롤린 라이트, 11월, 10쪽
 감사함, 애드니 와이 고마쯔, 1월, 30쪽
 감사, 로이드 피 조오지, 7월, 27쪽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디
 에드워드, 5월, 58쪽

개심(간증 참조)

신앙의 기초, 디엔 워커, 11월, 40쪽
 결국 그것은 진실이었다, 미라 메르세
 데스 페레스 로만, 10월, 28쪽
 94세에 다시 태어남, 루이스 불프, 6월,
 24쪽
 기적을 원함, 아만다 매리오티, 2월, 48쪽
 나는 그가 예언자란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과 알 칼루요, 12월, 30쪽
 내 마음에 드리워진 쿨백, 우술라 피서,
 9월, 24쪽
 내 자신을 단련시키거라, 칼 피터슨,
 10월, 48쪽
 물에서 주는 소책자, 가말리엘 알시데스
 바스케스, 8월, 22쪽
 마이크로네시아에 새로운 항로를 만들, 알
 발 존슨, 12월, 40쪽
 “어둠 속을 걸으며, 부른 찬송가”, 마빈
 케이 가드너, 2월 8쪽
 함께 짜여지는 인생, 아넬리스 프렌트
 웰리스, 10월, 46쪽

개혁자

먼저 낀 한 장의 사진, 엘마 야니라
 곤잘레스, 11월, 8쪽
 사라 마틸라 파르, 조이 존슨 히튼, 6월,
 56쪽
 아프리카의 복음 개혁자들, 이 데일
 레바론, 5월, 36쪽

격려

와드/지부 가족: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일부,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1월, 79쪽

결심(고결함 참조)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고든 비 힝클리, 8월, 2쪽
 “네 발의 행할 꺾음을 평탄케 하며”,
 엘레인 엘 잭, 1월, 98쪽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 하워드 더블류 헌터,
 11월, 2쪽
 이스라엘의 현대 용사, 몬트 제이
 브러프, 1월 63쪽
 “제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태국의
 루치라완 폰폰그라트, 데이비드 미첼
 6월, 10쪽

결혼

민들레에게서 얻은 응답, 밀리 프리츠
 레이애스, 12월, 32쪽
 위대한 행복의 계획, 델린 에이치 옥스,
 1월, 72쪽
 현재와 영원을 위하여, 보이드 케이
 패커, 1월, 21쪽

경건

산 속에서의 경건함, 캐롤 엘리 웰쉬, 3월, 50쪽

경륜의 시대

예언자들 중의 요셉 스미스, 로버트 엘 밀렛, 6월, 26쪽

경전 공부

경전에서 배움: 평생 동안의 탐구, 9월, 25쪽

고대 이스라엘의 선물, 리네트 에이치 켈리, 8월, 14쪽

구약전서를 좋아하게 되는 법을 배움, 메리 헤이즌 존슨, 2월, 41쪽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다, 제시 램프, 11월, 48쪽

금주의 성구, 스테이시 차일드 위크스, 6월, 9쪽

모든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함, 디 켈리 옥든과 알 볼 존슨, 4월, 10쪽

성구 찾기, 주디 에드워드, 8월, 어린이란 10쪽

계보(가족 역사 참조)

고결(결심 참조)

일어나서 방어하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8월, 46쪽

"내게 더 좋은 방법으로", 필 레쉬카, 5월, 16쪽

고통(시련 참조)

공예

12월, 어린이란 6쪽

과테말라

물에서 주은 소책자, 가말리엘 알시테 바스케스, 8월, 22쪽

티칼의 신전과 간증, 마빈 케이 가드너, 9월, 34쪽

관용

"우리에게 관용과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러셀 엠 앨슨, 7월, 69쪽

교만

마음의 큰 변화, 스펜서 제이 콘디, 1월, 15쪽

교회 교육 기구

로마의 바른 길에서, 디엔 워커, 3월, 10쪽

교회 평의회

협의의 힘, 엠 러셀 벨라드, 1월, 76쪽

구약전서

고대 이스라엘의 선물, 리네트 에이치 켈리, 8월, 14쪽

구약전서를 좋아하게 되는 법을 배움, 메리 헤이즌 존슨, 2월, 41쪽

모세, 비비언 폴슨, 6월, 어린이란 50쪽

출애굽: 하나님의 시험과 간증 및 본보기로서 조명해 본 글, 에스 켈트 브라운, 3월, 34쪽

구원의 계획

변화 속의 불변, 러셀 엠 넬슨, 1월, 33쪽
위대한 행복의 계획, 델린 에이치 옥스, 1월, 72쪽

급식

"그 자매님이 오늘 나오실 줄 알았어요", 올레 엠 스미스, 8월, 8쪽

기도

기운을 내어, 진 이노우에, 1월, 96쪽
아버지, 고맙습니다, 즐리앙 다이크, 10월 44쪽

영의 속삭임과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11월, 28쪽

주님의 바람, 존 에이치 그로버그, 1월, 26쪽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함, 질 켈벨, 3월, 60쪽

기쁨

상반되는 것, 기쁨과 기분 좋은 생활, 부르스 시와 마리 헤이폰, 3월, 14쪽

기적

기적을 원함, 아만다 매리오티, 2월, 48쪽

깨끗함

"사악한 은사나 불결한 것은 손에 대지 않도록 하라", 에이치 버크 피터슨, 1월, 42쪽



네덜란드

함께 짜여지는 인생, 아넬리스 프렌트 펠리스, 10월, 46쪽

노인슈안더, 데니스 비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 자네트 피터슨, 9월, 어린이란 6쪽

뉴스 속의 친구들

3월, 58쪽; 10월, 어린이란 10쪽

뉴욕

브롱크스의 소년, 엘리자 터너, 4월, 20쪽



다빌라, 홀리오 이

홀리오 이 다빌라 장로, 쟈 핀보리, 6월, 52쪽

도덕

"사악한 은사나 불결한 것은 손에 대지 않도록 하라", 에이치 버크 피터슨, 1월, 42쪽

오염된 환경에서 자녀를 키움, 조 제이 크리스틴슨, 1월, 11쪽

자녀를 빛과 의로움 안에서 키우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 54쪽

청소년이 성적인 순결을 선택하도록 도와줌, 조이 샌더스 린더버그, 5월, 18쪽

독일

94에 다시 태어남, 루이스 볼프, 6월, 24쪽
기적적인 선교 사업, 래리 에이 힐러, 2월, 12쪽

내 마음에 드리워진 철벽, 우술라 피셔, 9월, 24쪽

"아니, 저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금 어딜 가고 있지?", 시 알 게르쉬밤, 6월, 44쪽

대관장단 메시지

가장 가치 있는 것, 고든 비 힝클리, 3월, 2쪽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고든 비 힝클리, 8월, 2쪽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 에즈라 테프트 벤슨, 2월, 2쪽

신앙의 열쇠, 토마스 에스 몬슨 5월, 2쪽

예언자 요셉 스미스-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토마스 에스 몬슨, 6월, 2쪽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 하워드 더블류 헌터, 11월, 2쪽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에즈라 테프트 벤슨, 4월, 2쪽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권유하심, 하워드 더블류 헌터, 10월, 2쪽

항상 선한 일을 함, 고든 비 힝클리, 12월, 2쪽

디킨즈, 찰스

항상 선한 일을 함, 고든 비 힝클리, 12월, 2쪽



러시아

러시아에서 맺은 우정, 모린 클레이튼, 3월, 46쪽

레만, 마이클, 피터, 마티아스

기적적인 선교 사업, 래리 에이 힐러, 2월, 12쪽

리, 해롤드 비

해롤드 비 리: 주님의 화살통에 담긴 갈아 놓은 화살



마레로 가족

영원을 위한 도로 여행, 리사 에이 존슨, 5월, 46쪽

마음의 변화

마음의 큰 변화, 스펜서 제이 콘디, 1월, 15쪽

마티네스, 알빈

알빈 마티네스: 마친루처럼 하늘까지,

마일즈 투어슨, 8월, 10쪽

멕시코

결국 그것은 진실이었다, 미라 메르세

데스 빠레스 로만, 10월, 26쪽

멕시코부터 온 사랑, 4월, 58쪽

씨뿌리는 날, 넷자왈코요틀 살리나스

브이, 8월, 32쪽

친절에 보답함, 5월, 30쪽

모범

고대 이스라엘의 선물, 리네트 에이치

켈리, 8월, 14쪽

"내게 더 좋은 방법으로", 필 레쉬카,

5월, 16쪽

선한 생활의 힘, 말린 케이 켄슨, 7월, 47쪽

예언자 요셉 스미스-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토마스 에스 몬슨, 6월, 2쪽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권유하심,

하워드 더블류 헌터, 10월, 2쪽

모성

기운을 내어, 진 이노우에, 1월, 96쪽

자녀를 빛과 의로움 안에서 키우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 54쪽

현재와 영원을 위하여, 보이드 케이

패커, 1월, 21쪽

모세

모세, 비비언 폴슨, 6월, 50쪽

몬스, 토마스 에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제프리 알

홀런드, 10월, 16쪽

물문경

네 자신을 단련시키거라, 칼 피터슨,

10월, 48쪽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캐럴린

존스톤, 6월, 34쪽

물문경에 나타난 크리스마스, 12월, 34쪽

새로운 여름 친구들, 제넷 토마스, 6월,

46쪽

시험을 받은 후에 얻은 간증, 윌리엄 지

다이어, 9월, 20쪽

출애굽: 하나님의 시험과 간증 및

본보기로서 조명해 본 글, 3월, 34쪽

형가리 국민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제프리 에스 맥클란, 12월, 16쪽

물문경 이야기

모로나이 장군과 자유의 깃발, 11월,

어린이란 2쪽

모로나이 장군이 제레햄나를 패배시킴,

10월, 어린이란 13쪽

엘마가 그의 아들들에게 권고함, 8월,

어린이란 2쪽

엘마가 신앙에 대해 가르침, 6월, 64쪽

조랩인과 래미움프롬, 4월, 어린이란 50쪽

코리호어, 2월, 62쪽

미술

요셉 스미스, 회복의 예언자, 마빈 케이

가드너, 6월, 36쪽

준비된 사람들: 아프리카의

말일성도들이 보낸 미술품 및 기념물,

마조리 드래퍼 콘더, 5월, 32쪽

미크로네시아

미크로네시아에 새로운 향로를 만듦, 알

발 존슨, 12월, 40쪽

밀로, 시몬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시몬 밀로, 디안

워커, 2월, 50쪽

년

방문 교육

방문 교사로 봉사한 30년, 이르마 드

맥케나, 3월, 20쪽

방문 교육 메시지

경전에서 배움: 평생 동안의 탐구, 9월, 25쪽

성전에 참석함, 8월, 25쪽

성신의 은사, 3월, 25쪽

성찬을 통해 구세주를 기억함, 4월, 25쪽

신권의 축복에 온전히 참여함, 2월, 25쪽

영적인 확신, 12월, 25쪽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일은

평생의 과업임, 10월, 25쪽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힘을 얻음, 6월, 25쪽

침례의 축복을 더욱 더 감사드림, 5월, 25쪽

특별한 신권 축복을 받음, 11월, 25쪽

베도

성약을 지키고 신권을 존중함,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 36쪽

"태초부터", 닐 에이 맥스웰, 1월, 18쪽

베드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고든 비 힝클리, 8월, 2쪽

벤슨, 에즈라 태프트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켈 핀보르,

7월, 부록

에즈라 태프트 벤슨, 캘리 릭스 아담스,

9월, 어린이란 14쪽

베트남

나의 적의 일기, 스티븐 지 비들프, 9월,

32쪽

병고침

병고침을 받음, 리차드 지 스코트, 7월,

7쪽

영적인 병고침을 위한 신성한 처방,

멜콤 에스 켈슨, 7월, 17쪽

보호

보호의 손길, 테오도루스 지 바알만,

9월, 30쪽

봉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 4쪽

러시아에서 맺은 우정, 모린 클레이튼,

3월, 46쪽

봉사 및 행복, 야콥 디야거, 1월, 31쪽

상호부조희: 그 지도적인 원리인 사랑,

1월, 92쪽

씨뿌리는 날, 넷자왈코요틀 살리나스

브이, 8월, 32쪽

와드/지부 가족: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일부,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1월, 79쪽

우리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심, 케네스 존슨, 7월, 29쪽

조상들을 발견함, 야라 카사브

델로로스, 9월, 44쪽

"주 예수를 닮으려고", 주디 에드워드,

12월, 어린이란 7쪽

친절에 보답함, 5월, 30쪽

특별한 조장, 버지니아 브라잇, 5월, 60쪽

부모의 역할(가족 관계 참조)

가르침의 순간, 메리 모릴, 4월, 24쪽

나의 당굴 장미, 8월, 40쪽

어린이들이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움, 시 테리 워너와 수잔

엘 워너, 8월, 26쪽

자녀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로버트 디 헤일즈, 1월, 8쪽

자녀를 빛과 의로움 안에서 키우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 54쪽

청소년이 성적인 순결을 선택하도록

도와줌, 조이 샌더스 런드버그, 5월, 18쪽

부활(예수 그리스도 참조)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칼로스 이 에이시, 7월, 10쪽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4월, 2쪽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고든 비

힝클리, 7월, 72쪽

피터의 부활절 메시지, 게일 엘리스,

4월, 60쪽

부활절(속죄, 부활 참조)

브라질에서의 야영 모임, 5월

브롱크스의 소년

브롱크스의 소년, 엘리자 터너, 4월,

20쪽

비전(시각)

영원한 시각,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1월, 44쪽

비활동(활동이 저조한 참조)

入

사랑

나의 덩굴 장미, 8월, 40쪽
 떡 나뭇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 4쪽
 사라 모즐리의 뒷늦은 크리스마스 선물, 레이 골드럽, 12월, 어린이란 10쪽
 상호부조회-그 지도적인 원리인 사랑,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1월, 92쪽
 스펜서 더블류 킴블: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페트리어 켈리, 3월, 26쪽
 씨뿌리는 날, 넷자왈코요틀 살리나스 브이, 8월, 32쪽
 아버지, 고맙습니다, 줄리앙 다이크, 10월, 44쪽
 어린이의 사랑을 성숙된 사랑으로 발전시키, 엘버트 홀스 이세, 7월, 13쪽
 왜 날 깨우지 않았죠?, 존 에이치 그로버그, 12월, 22쪽
 "우리에게 관용과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러셀 엠 넬슨, 7월, 69쪽
 이야기: 몇 분의 동전, 레슬리 가르시아, 2월, 54쪽
 "주 예수를 닮으려고", 주디 에드워드, 12월, 어린이란 7쪽
 최고의 교사, 웬디 에빈즈 우디, 9월, 46쪽
 "하나님을 바라보아 실도록 하라", 제프리 알 홀런드, 1월, 13쪽

상반되는 것(시련 참조)

상호부조회

다양성을 통합 평등, 엠 러셀 벨라드, 1월, 89쪽
 상호부조회: 그 지도적인 원리인 사랑,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1월, 92쪽

선교 사업

가장 가치 있는 것, 고든 비 힝클리, 3월, 2쪽
 결국 그것은 진실이었다, 미라 메르세데스 베레스 로만, 10월, 26쪽
 기적적인 선교 사업, 래리 에이 힐러, 2월, 12쪽
 네 자신을 단련시키거라, 칼 피터슨, 10월, 48쪽
 먼지 낀 한 장의 사진, 엘마 야니라 곤잘레스, 11월, 8쪽
 사랑의 고리, 호세 로베르트 알라르콘 나바레테, 2월, 26쪽

선교사는 평화를 공포함, 주디 에드워드, 11월, 어린이란 10쪽
 선교 사업-우리의 책임, 데이비드 비헤이트, 1월, 61쪽
 아브라함의 성약: 만인을 위한 축복, 켄트 피 잭슨, 2월, 42쪽
 아프리카의 복음 개척자들, 이 데일 레마론, 5월, 36쪽
 영원한 시각,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1월, 44쪽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에즈라 테프트 벤슨, 4월, 2쪽
 장막의 줄을 길게 하여, 메릴 제이 배이트먼, 7월, 65쪽
 주님의 바람, 존 에이치 그로버그, 1월, 26쪽
 포르투갈에서의 크리스마스 밤, 반더 페레이라 드 안드라데, 12월, 26쪽

선택

결정, 제럴드 이 멜친, 7월, 80쪽
 여러분의 성약을 기억하십시오, 찰스 디디에이, 7월, 42쪽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함, 에프 멜빈 하몬드, 7월, 82쪽
 "우리가 어찌 할꼬?", 한스 비 링거, 7월, 86쪽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엘 톱 페리, 1월, 66쪽

성결케 됨

문제는 진리입니다, 에프 엔지오 부쉬, 1월, 24쪽

성별

가장 가치 있는 것, 고든 비 힝클리, 3월, 2쪽
 몇 분의 동전, 레슬리 가르시아, 2월, 어린이란 54쪽
 손과 마음으로 봄, 쿵 테드 누언, 4월, 44쪽

성신

나 자신보다 더 큰 어떤 힘, 카산드라 린 트사이, 5월, 9쪽
 마음의 큰 변화, 스펜서 제이 콘디, 1월, 15쪽
 성신의 은사, 3월, 25쪽
 어린이들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움, 시 태리 워너와 수잔 엘 워너, 8월, 26쪽
 영의 속삭임, 리차드 지 스코트, 10월, 어린이란 2쪽
 영의 속삭임과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11월, 28쪽

성약(침례, 성전 및 성전 사업 참조)

"네 발의 행할 침례를 평탄케 하며, 엘레인 엘 잭, 1월, 98쪽

아브라함의 성약: 만인을 위한 축복, 켄트 피 잭슨, 2월, 42쪽
 여러분의 성약을 기억하십시오, 찰스 디디에이, 7월, 42쪽

성의 역할

다양성을 통한 평등, 엠 러셀 벨라드, 5월 89쪽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보이드 케이 패커, 1월, 21쪽

성전 및 성전 사업(가족 역사 참조)

멕시코로부터 온 사랑, 4월, 58쪽
 성스러운 곳,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9월, 어린이란 12쪽
 성전에 참석함: 어려움과 축복, 8월, 25쪽
 영원을 위한 도로 여행, 리사 에이 존슨, 5월, 46쪽
 완전한 활동 회원이 됨, 빈센트 무노스 올로야, 9월, 22쪽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 하워드 더블류 천터, 11월, 2쪽
 프랑고 자매와 성전, 조셉 비 워스틴, 5월, 52쪽

성찬

성찬을 통해 구세주를 기억함, 4월, 25쪽
 성찬 책, 크리스틴 브랜치, 4월, 63쪽

성탄절

노래 "성탄 축하", 패트리샤 켈시 그레이엄, 12월, 어린이란 4쪽
 대관장단 성탄절 메시지, 12월, 1쪽
 물문경에 나타난 크리스마스, 12월, 34쪽
 사라 모즐리의 뒷늦은 크리스마스 선물, 레이 골드럽, 12월, 어린이란 10쪽
 성탄절 메시지, 대관장단, 12월, 어린이란 2쪽
 왜 날 깨우지 않았죠?, 존 에이치 그로버그, 12월, 22쪽
 "주 예수를 닮으려고", 주디 에드워드, 12월, 어린이란 7쪽
 포르투갈에서의 크리스마스 밤, 반더 페레이라 드 안드라데, 12월, 26쪽
 형가리 국민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제프리 에스 맥클란, 12월, 16쪽

성탄절 공예

12월, 어린이란 6쪽

세계적인 교회

제3회 국제 예술 경연 대회: 전세계적인 교회 안에서 복음에 따라 생활함, 11월 32쪽

세미나리(교회 교육 기구 참조)

속죄(예수 그리스도 회개 참조)

변화 속의 불변, 러셀 엠 넬슨, 1월, 33쪽

삶의 고난을 헤쳐며, 토마스 에스 몬슨, 1월, 68쪽

우리 주 구세주, 조셉 비 워스틴, 1월, 5쪽

죄와 고통, 델린 에이치 옥스, 4월, 26쪽

출애굽: 하나의 시험과 간증 및 본보기로서 조명해 본 글, 에스 켈트 브라운, 3월, 34쪽

하나님의 용서, 로널드 이 포울먼, 1월, 84쪽

손과 마음으로 봄

손과 마음으로 봄, 쿵 테드 누언, 4월, 44쪽

순결

위대한 행복의 계획, 델린 에이치 옥스, 1월, 72쪽

순종

"제명을 지키라", 주디 에드워드, 4월, 56쪽

순종하는 생활, 조셉 비 워스틴, 7월, 39쪽

"영적인 지식을 얻음", 리차드 지 스코트, 1월, 86쪽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함, 에프 델린 하몬드, 7월, 82쪽

"우리가 어찌 할꼬?", 한스 비 링거, 7월, 86쪽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엘 톱 페리, 1월, 66쪽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권유하심, 하워드 더블류 헌더, 10월, 2쪽

행복의 추구, 더블류 유진 헨슨, 1월, 81쪽

스미스, 요셉

나는 그가 예언자란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파 알 칼루요, 12월, 30쪽

예언자 요셉 스미스-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토마스 에스 몬슨, 6월, 2쪽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캐럴린 존스톤, 6월, 34쪽

예언자들 중의 요셉 스미스, 로버트 엘 밀렛, 6월, 26쪽

요셉 스미스, 회복의 예언자, 마빈 케이 가드너, 6월, 36쪽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고든 비 힝클리, 7월, 72쪽

스카우팅

위로 향한 길, 토마스 에스 몬슨, 1월, 47쪽

토마스 에스 몬스 부대관장 스카우트상 수상, 1월, 46쪽

스페인

스페인의 펜싱 챔피언, 5월, 31쪽

습관

마음의 큰 변화, 스펜서 제이 콘디, 1월, 15쪽

시련

상반되는 것, 기쁨과 기본 좋은 생활, 브루스 시와 마리 헤이픈, 3월, 14쪽

이전과 이후, 타일러 윌킨슨, 11월, 26쪽

죄와 고통, 델린 에이치 옥스, 4월, 26쪽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 53쪽

한밤 중의 평안, 안나 모라 몬테레이, 5월, 26쪽

시마부꾸로, 샘 케이

샘 케이 시마부꾸로 장로, 잔 핀버로, 4월, 53쪽

신권

"내 양을 먹이라", 리차드 피 린지, 7월, 45쪽

모든 장로들과 모든 자매들이 알아야 하는 것, 보이드 케이 패커, 11월, 14쪽

변화 속의 불변, 러셀 엠 넬슨, 1월, 33쪽

성약을 지키고 신권을 존중함,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 36쪽

신권-성스러운 책임,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49쪽

신권의 축복에 온전히 참여함, 2월, 25쪽

아브라함의 성약: 만인을 위한 축복, 켈트 피 잭슨, 2월, 42쪽

자녀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로버트 디 헤일즈, 1월, 8쪽

자녀를 빛과 의로움 안에서 키우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 54쪽

특별한 신권 축복을 받음, 11월, 25쪽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 53쪽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보이드 케이 패커, 1월, 21쪽

힘의 힘, 엠 러셀 벨라드, 1월, 76쪽

신권 정원회

씨뿌리는 날, 넷자왈코요를 살리나스 브이, 8월, 32쪽

신권 축복

한밤 중의 평안, 5월, 26쪽

신회

이야기: 라마야, 이리 와!, 버나 터핀 보스키, 9월, 어린이란 1쪽

신앙(간증 참조)

구세주께로부터 나오는 힘, 지에코 엔 오까자키, 1월, 94쪽

"그 자매님이 오늘 나오실 줄 알았어요", 올레 움 스미스, 8월, 8쪽

기적을 원함, 아만다 매리오티, 2월, 48쪽

나의 덩굴 장미, 8월, 40쪽

다양성을 통한 평등, 엠 러셀 벨라드, 1월, 89쪽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고든 비 힝클리, 8월, 2쪽

보물, 론다 페티, 6월, 61쪽

보호의 손길, 테오도루스 지 바알만, 9월, 30쪽

스펜서 더블류 킴볼: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페트리어 켈리, 3월, 26쪽

신앙의 기초, 디엔 워커, 11월, 40쪽

신앙의 열쇠, 토마스 에스 몬슨, 5월, 2쪽

신앙이 증가됨, 패트리샤 피 피네가, 7월, 94쪽

신앙이 해답입니다,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7월, 92쪽

"아니, 저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지?", 시 알 케르쉬밤, 6월, 44쪽

영원한 시각,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1월, 44쪽

영적으로 성장함, 제니트 시 헤일즈, 7월, 96쪽

"태초부터", 닐 에이 맥스웰, 1월, 18쪽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 제프리 알 홀런드, 1월, 13쪽

"영적인 지식을 얻음", 리차드 지 스코트, 1월, 86쪽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델린 에이치 옥스, 7월, 98쪽

주님의 바람, 존 에이치 그로버그, 1월, 26쪽

심심풀이

2월, 57쪽; 3월, 64쪽; 5월, 53쪽; 6월, 59쪽; 8월, 어린이란 5쪽; 9월, 어린이란 16쪽; 10월, 어린이란 12쪽; 11월, 어린이란 7쪽

십일조

나의 간증, 고든 비 힝클리, 1월, 51쪽

45년 동안의 십일조 계정, 버논 엘 힐, 12월, 8쪽

십일조, 델린 에이치 옥스, 7월, 33쪽

○

아론 신권

기쁨으로 가득 찬 영원한 운항을 위한 개인 점검표, 휴 더블류 피녹크, 40쪽

위로 향한 길, 토마스 에스 몬슨, 1월, 47쪽

아버지와 가족, 보이드 케이 패커, 7월, 19쪽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성약: 만인을 위한 축복, 켈트 피 잭슨, 2월, 42쪽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복음 개척자들, 이 데일 레바론, 5월, 36쪽

준비된 사람들: 아프리카의 말일성도들이 보낸 미술품 및 기념물, 마조리, 드래퍼 콘더, 5월, 32쪽

어린이

가르침의 순간, 메리 모릴, 4월, 24쪽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엠 러셀
벨라드, 미셸린 피 그레슬리, 10월, 35쪽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도록 가르침, 루스 비 라이트,
7월, 84쪽
자녀들의 특별한 신분, 멀린 알 리버트,
7월, 31쪽
자녀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벤 비
뱅크스, 1월, 28쪽

엘살바도르

먼지 낀 한 장의 사진, 엘마 야니라
곤잘레스, 11월, 8쪽

영국

다 같이 하나되어, 리차드 엠 롬니, 4월,
38쪽

영생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에즈라 테프트 벤슨, 4월, 2쪽

영성

"내 밭의 행할 침경을 평판케 하며",
엘레인 엘 잭, 1월, 98쪽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 에즈라
테프트 벤슨, 2월, 2쪽
어린이들이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움, 시 테리 워너와 수잔
엘 워너, 8월, 26쪽
오염된 환경에서 자녀를 키움, 조 제이
크리스틴슨, 1월, 11쪽
해롤드 비 리: 주님의 화살통에 담긴
갈아 놓은 화살, 패트리아 켈리, 2월, 18쪽

영원한 진보

"나와 함께 행하라", 엘레인 엘잭, 7월, 15쪽
어린이의 사랑을 성숙된 사랑으로
발전시킴, 엘버트 출스 이세, 7월, 13쪽

영의 세계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에즈라 테프트 벤슨, 4월, 2쪽

예수 그리스도(속죄, 부활 참조)

구세주께로부터 나오는 힘, 지에코 엔
오까자기, 1월, 94쪽
나사렛 예수, 데이비드 비 헤이트, 7월,
75쪽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워드 더블류 헌터, 7월, 64쪽
모든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였음, 디 켈리 옥든과 알 불
존슨, 4월, 10쪽
삶의 고난을 헤치며, 토마스 에스 몬슨,
1월, 68쪽

신앙이 증가됨, 패트리샤 피 피네가,
7월, 94쪽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메시지, 로버트
디 헤일즈, 7월, 78쪽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함, 에프 델빈
하몬드, 7월, 82쪽
우리의 주 구세주, 조셉 비 워스린, 1월,
5쪽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고든 비
힝클리, 7월, 72쪽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델린
에이치 옥스, 7월, 98쪽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권유하심,
하워드 더블류 헌터, 10월, 2쪽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91쪽
참된 신자, 닐 에이 맥스웰, 12월, 10쪽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고든 비 힝클리, 7월, 53쪽
항상 선한 일을 행함, 고든 비 힝클리,
12월, 2쪽

예술

노력의 예술, 자넷 토마스, 5월, 12쪽

예언자

모든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였음, 디 켈리 옥든과 알 불
존슨, 4월, 10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켈린 릭스 아담스,
9월, 14쪽
예언자 요셉 스미스-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토마스 에스 몬슨, 6월, 2쪽
예언자들 중의 요셉 스미스, 로버트 엘
빌렛, 6월, 26쪽
스펜서 더블류 킴볼: 그는 포기 하지
않았다, 패트리어 켈리, 3월, 26쪽
스펜서 더블류 킴볼, 켈렌 릭스 아담스,
5월, 50쪽
해롤드 비 리: 주님의 화살통에 담긴
갈아 놓은 화살, 패트리아 켈리, 2월

와드 및 지부

와드/지부 가족: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일부,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1월 79쪽

의설

"사악한 은사나 불결한 것은 손에 대지
않도록 하라", 에이치 버크 피터슨,
1월, 42쪽

요셉 스미스 기념관

요셉 스미스 기념관, 4월, 34쪽

용기

귀 기울이는 용기,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7월 66쪽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워드 더블류 헌터, 7월, 64쪽
일어나서 방어하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8월, 46쪽
자녀를 빛과 의로움 안에서 키우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 54쪽

용서

"내가 용서하지", 주디 에드워드, 9월,
어린이란 8쪽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 4쪽
사라 모즐리의 뒤늦은 크리스마스 선물,
레이 골드럽, 12월, 어린이란 10쪽
하나님의 용서, 로널드 이 포울먼, 1월, 84쪽

우선 순위

이전과 이전, 타일러 윌킨슨, 11월, 26쪽

우정

비오는 날, 벅시 숄턴푸스, 2월,
어린이란 60쪽

위한

구세주께로부터 나오는 힘, 지에코 엔
오까자기, 1월, 94쪽
삶의 고난을 헤치며, 토마스 에스 몬슨,
1월, 68쪽
와드/지부 가족: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일부,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1월, 79쪽

유혹

누가 지배하는가?, 케네스 존슨, 6월, 18쪽

유타 호텔(요셉 스미스 기념관 참조)

음악

계명을 지키라, 바바라 에이 맥코노키
9월, 어린이란 10쪽
나 침례받고 나면, 니타 데일 밀너, 6월,
60쪽
노래 가사, 페이지 매리엇, 4월, 33쪽
성탄 축하, 패트리샤 켈시 그레이엄,
12월, 어린이란 4쪽
주 사랑 느껴요, 랄프 로저스 2세, 케이
뉴엘 데일리, 로리 후프만, 3월, 54쪽

의로움

행복의 추구, 더블류 유진 헨슨, 1월, 81쪽

이스라엘

출애굽: 하나님의 시험과 간증 및
본보기로서 조명해 본 글, 에스 켄트
브라운, 3월, 34쪽

이야기

라마야, 이리 와!, 버나 터핀 보스키,
9월, 어린이란 1쪽
몇 편의 동전, 레슬리 가르시아, 2월,
어린이란 54쪽
보물, 론다 페티, 6월, 61쪽

사라 모즐리의 뒤늦은 크리스마스 선물,
레이 골드럽, 12월, 어린이란 10쪽
산 속에서의 경건함, 캐롤 엘리 웰쉬,
3월, 50쪽
성스러운 곳, 제인 맥브라이드 호우트,
9월, 어린이란 12쪽
애비의 날, 미셸 브럼 올리버, 8월,
어린이란 12쪽
진정한 간증, 리네트 버크 헤일, 5월, 54쪽
초코바,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8월,
어린이란 6쪽
캐리의 성약, 스티븐 이버슨, 10월,
어린이란 4쪽
특별한 조장, 버지니아 브라쉬, 5월, 60쪽
파이퍼 형제님의 파이, 엘마 제이
에이즈, 11월, 어린이란 12쪽
피터의 부활절 메시지, 게일 엘리스,
4월, 어린이란 60쪽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함, 질 캄벨, 3월, 60쪽

이탈리아
로마의 바른 길에서, 디엔 워커, 3월
빛을 기억함, 단 소프와 캐더린 소프,
8월, 34쪽
신앙의 기초, 디엔 워커, 11월, 40쪽
이탈리아 시에나의 레베카 파바레토,
디엔 워커, 5월, 62쪽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시몬 밀로, 디엔
워커, 2월, 50쪽

일본
태풍, 노리코 오노, 10월, 30쪽

ス

자유의지
결정, 제럴드 이 델친, 7월, 80쪽

자제
누가 지배하는가?, 케네스 존슨, 6월, 18쪽

장애
노력의 예술, 자넷 토마스, 5월, 12쪽
손과 마음으로 봄, 쿵 테드 누언, 4월, 44쪽
알빈 마티네스: 마천루처럼 하늘까지,
마일즈 투아슨, 8월, 10쪽
최고의 교사, 웬디 에번즈 우디, 9월, 46쪽

세능
손과 마음으로 봄, 쿵 테드 누언, 4월, 44쪽

재림
태풍!, 노리코 오노, 10월, 30쪽

재활동 촉진
민들레에게서 얻은 응답, 밀리 프리츠
레이에스, 12월, 32쪽

전쟁
나의 적의 일기, 스티븐 지 비들프, 9월,
32쪽

정직
파이퍼 형제님의 파이, 엘마 제이
에이즈, 11월, 어린이란 12쪽
초코바,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8월,
어린이란 6쪽

제자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권유하심,
하워드 더블류 헌터, 10월, 2쪽

죄(속죄, 회개 참조)
존스, 덴
가장 가치 있는 것, 고든 비 힝클리, 3월, 2쪽

존스, 일리암
맨 섬의 일리암 존스, 리차드 엠 롬니,
8월, 어린이란 14쪽

준비
기쁨으로 가득찬 영원한 운항을 위한
개인 점검표, 휴 더블류 피녹크, 1월, 40쪽
선교 사업-우리의 책임, 데이비드 비
헤이트, 1월, 61쪽
태풍!, 노리코 오노, 10월, 30쪽

중국
중국에서 본 보물, 제니 셰일러, 4월, 8쪽

지도력
"내 양을 먹이라", 리차드 피 린지, 7월
45쪽
스펜서 더블류 킴블: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페트리어 켈리, 3월, 26쪽
해롤드 비 리: 주님의 화살통에 담긴
갈아 놓은 화살, 페트리아 켈리, 2월,
18쪽
협회의 힘, 엠 러셀 벨라드, 1월, 76쪽

지식
영적인 지식을 얻음, 리차드 지 스코트,
1월, 86쪽

지혜의 말씀
왜 절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 안
될까요?, 9월, 26쪽

진리
문제는 진리입니다, 에프 엔지오 부쉬,
1월, 24쪽

질의 응답
어떻게 하면 저희 가족들을 단합시킬 수
있을까요?, 6월, 20쪽
영의 속삭임과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11월, 28쪽
왜 절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 안
될까요?, 9월, 26쪽

ス

.....
참된 신자, 닐 에이 맥스웰, 12월, 10쪽

창조
창조, 2월, 32쪽

책임
기쁨으로 가득찬 영원한 운항을 위한
개인 점검표, 휴 더블류 피녹크, 1월, 40쪽

청녀
빛을 기억함, 단 소프와 캐더린 소프,
8월, 34쪽
영적으로 성장함, 재니트 시 헤일즈,
7월, 96쪽

청년
독신 성인들이 영동에 모임, 5월, 29쪽

청소년
위로 향한 길, 토마스 에스 몬슨, 1월, 47쪽

청소년 대회
타이티 섬의 진주, 캐스린 시 페린, 6월,
14월

체코슬로바키아
45년 동안의 십일조 계정, 버논 엘 힐,
12월, 8쪽

축복사의 축복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힘을 얻음, 6월, 25쪽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 아만다
민스, 3월, 33쪽

출애굽
출애굽: 하나의 시험과 간증 및
본보기로서 조명해 본 글, 3월, 34쪽

충성
성약을 지키고 신권을 존중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1월, 36쪽
이스라엘의 현대 용사, 몬트 제이
브러프, 1월, 63쪽

친구가 친구에게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 자넷
피터슨, 9월, 어린이란 6쪽
렉스 디 피네가 장로, 질 존슨 히모스,
2월 52쪽
리노 알바레즈 장로, 11월, 어린이란 8쪽
샘 케이 시마부꾸로 장로, 쟈 핀보러,
4월, 53쪽
홀리오 이 다빌라 장로, 쟈 핀보러, 6월, 52쪽

친구 사귀기
맨 섬의 일리암 존스, 리차드 엠 롬니,
8월, 어린이란 14쪽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사는 키틀
키틀루카 타나 홀로쇼, 로즈메리 지
파머, 12월, 어린이란 13쪽
이탈리아 시에나의 레베카 파바레토,
디엔 워커, 5월, 62쪽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시몬 밀로, 디엔
워커, 2월, 50쪽

칠레
방문 교사로 봉사한 삼십 년, 이르마 드
맥케나, 3월, 20쪽

사랑의 고리, 호세 로베르토 알라르콘
나바레테, 2월, 26쪽

침례

방문 교육 메시지: 침례의 축복을
더욱더 감사함, 5월, 25쪽
캐리의 성약, 스티븐 이버슨, 10월,
어린이란 4쪽

ㄱ

캐나다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았다, 캐럴린
존스틴, 6월, 34쪽

킴블, 스펜서 더블류

스펜서 더블류 킴블: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페트리어 켈리, 3월, 26쪽
스펜서 더블류 킴블, 켈렌 릭스 아담스,
5월, 50쪽

키릴룩, 키릴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사는 키릴
키릴룩과 타나 홀로쇼, 로즈메리 지
파머, 12월, 어린이란 13쪽

ㄷ

타히티

왜 날 깨우지 않았죠?, 존 에이치
그로버그, 12월, 22쪽
타히티 섬의 진주, 캐스틴 시 페린, 6월, 14쪽

탐구

계보 사업 일백 년, 레베카 엠 테일러,
11월, 어린이란 4쪽

태국

“제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태국의 루치라완 폰폰그레트,
메이비드 미첼, 6월, 10쪽

태도

봉사 및 행복, 야곱 디야저, 1월, 31쪽
토랄레스, 파우스트와 펠리시타
“어둠 속을 걸으며, 부른 환송가”, 마빈
케이 가드너, 2월, 8쪽

ㄷ

파라과이

“어둠 속을 걸으며, 부른 환송가”, 마빈
케이 가드너, 2월, 8쪽

파르, 사라 마틸다

사라 마틸다 파르, 조이 존슨 히튼, 6월, 56쪽

파바레토, 레베카

이탈리아 시에나의 레베카 파바레토,
디앤 위커, 5월, 62쪽

포르투갈

포르투갈에서의 크리스마스 밤, 반디
페레이라 드 안드라데, 12월, 26쪽

폰폰그레트, 루치라완

“제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태국의 루치라완 폰폰그레트, 6월, 10쪽

페루

라마야, 이리 와!, 버나 터핀 보스키,
9월, 어린이란 1쪽

평의회

평의회와 함께 협의함, 엠 러셀 벨라드,
7월, 24쪽

평화(함께 나누는 시간 참조)

내 마음에 드리워진 철벽, 9월, 24쪽
평화에 이르는 길,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60쪽
한밤 중의 평안, 5월, 26쪽

플린 가족

다 같이 하나되어, 리차드 엠 롬니, 4월,
38쪽

피네가 렉스 디

렉스 디 피네가 장로, 실 존슨 히머스,
2월, 52쪽

필리핀

나는 그가 예언자란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파 알 칼루요, 12월, 30쪽
알빈 마티네스: 마천루처럼 하늘까지,
마일즈 투아슨, 8월, 10쪽

필멸의 인생

상반되는 것, 기쁨과 기분 좋은 생활,
브루스 시와 마리 헤이픈, 3월, 14쪽

ㅇ

학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엠 러셀
벨라드, 미셸린 피 그레슬리, 10월, 35쪽

한국

독신 성인들이 영동에 모임, 5월, 29쪽

함께 나누는 시간

“계명을 지키라”, 주디 에드워드, 4월, 56쪽
구원의 계획은 저에게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주디 에드워드, 3월, 56쪽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주디
에드워드, 10월, 어린이란 8쪽
“내가 용서하지”, 주디 에드워드, 9월,
어린이란 8쪽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디
에드워드, 5월, 58쪽

선교사는 평화를 공포함, 주디
에드워드, 11월, 어린이란 10쪽

성구 찾기, 주디 에드워드, 8월,
어린이란 10쪽

감감하라, 고요하라, 주디 에드워드,
6월, 54쪽

“주 예수를 닮아려고”, 주디 에드워드,
12월, 어린이란 7쪽

평안, 주디 에드워드, 2월, 58쪽

행복

봉사 및 행복, 야곱 디야저, 1월, 31쪽
순종하는 생활, 조셉 비 위스틴, 7월,
39쪽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엘 톰
페리, 1월, 66쪽
행복의 추구, 더블류 유진 헨슨, 1월, 81쪽

헌터, 하워드 더블류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독수리의
자취, 제임스 이 파우스트, 9월, 2쪽

헝가리

헝가리 국민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제프리 에스 맥클란, 12월, 16쪽

형제애

나의 적의 일기, 스티븐 지 비돌프, 9월,
32쪽

홀로쇼, 타나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사는 키릴
키릴룩과 타나 홀로쇼, 로즈메리 지
파머, 12월, 어린이란 13쪽

활동이 저조한

완전한 활동 회원이 됨, 빈센트 무노스
올로아, 9월, 22쪽

회개(속죄 참조)

문제는 진리입니다, 에프 엔지오 부쉬,
1월, 24쪽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나라,
고든 비 힝클리, 8월, 2쪽

“사악한 은사나 불결한 것은 손에 대지
않도록 하라”, 에이치 버크 피터슨,
1월, 42쪽

어둠에서 빛으로: 회개의 은사,

헬메시오 마틴스, 10월, 32쪽

영적인 병고침을 위한 신성한 처방,

멜콤 에스 쟈슨, 7월, 17쪽

죄와 고통, 델린 에이치 욱스, 4월, 26쪽

초코바,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8월,
어린이란 6쪽

하나님의 용서, 도널드 이 포울먼, 1월,
84쪽

회복

나의 간증, 고든 비 힝클리, 1월, 51쪽
영혼의 닻, 엠 러셀 벨라드, 9월, 40쪽

예언자들 중의 요셉 스미스, 로버트 엘
밀렛, 6월, 26쪽

“태초부터”, 닐 에이 맥스웰, 1월, 18쪽

힝클리, 고든 비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엠 러셀
벨라드, 10월, 8쪽

저자 색인

ㄱ

- 가드너, 마빈 케이
어둠 속을 걸으며, 부른 찬송가, 2월, 8쪽
요셉 스미스, 회복의 예언자, 6월, 36쪽
티칼의 신전과 간증, 9월, 34쪽
- 가르시아, 레슬리
몇 편의 동전, 2월, 54쪽
- 고마즈, 에드니 와이
감사함, 1월, 30쪽
- 곤잘레스, 엘마 야니라
먼저 낀 한 장의 사진, 11월, 8쪽
- 골드럽, 레이
사라 모즐리의 뒤늦은 크리스마스 선물, 12월, 어린이란 10쪽
- 그래슬리, 미셸린 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10월, 35쪽
- 그레이엄, 패트리샤 켈시
성탄 축하, 12월, 어린이란 4쪽
- 그로버그, 존 에이치
왜 날 깨우지 않았죠, 12월, 22쪽
주님의 바람, 1월, 26쪽

ㄴ

- 나바레테, 호세 로베르토 알라르콘
사랑의 고리, 2월, 26쪽
- 널, 케이시
협담: 이것을 그치는 방법, 5월, 28쪽
- 넬슨, 러셀 엠
변화 속의 물변, 1월, 33쪽
"우리에게 관용과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7월, 69쪽
- 누언, 쿵 테드
손과 마음으로 봄, 4월, 44쪽

ㄷ

- 다이어, 윌리엄 지
시험을 받은 후에 얻은 간증, 9월, 20쪽
- 다이크, 줄리앙
아버지, 고맙습니다, 10월, 44쪽
- 데일리, 케이 뉴엘
주 사랑 느껴요, 3월, 54쪽
- 드 안드라데, 반더 페레이라
포르투갈에서의 크리스마스 밤, 12월, 26쪽
- 디데이, 찰스
여러분의 성약을 기억하십시오, 7월, 42쪽
- 디아저, 야곱
봉사 및 행복, 1월, 31쪽

ㄴ

- 라이트, 루스 비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도록 가르침, 7월, 84쪽
- 라이트, 캐롤린
감사의 마음, 11월, 10쪽
- 래시, 테브라
십대 청소년의 지도, 10월, 24쪽
- 램지, 제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다, 11월, 48쪽
- 런드버그, 조이 샌더슨
청소년이 성적인 순결을 선택하도록 도와줌, 5월, 18쪽
- 레바론, 이 데일
아프리카의 복음 개척자들, 5월, 36쪽
- 레이에스, 밀리 프리츠
민들레에게서 얻은 응답, 12월, 32쪽
- 레쉬카, 필
"내게 더 좋은 방법으로", 5월, 16쪽
- 로만, 미라 메르세데스 베레스
결국 그것은 진실이었다, 10월, 26쪽
- 로저스 2세, 랄프
주 사랑 느껴요, 3월, 54쪽
- 롭니, 리차드 엠
다 같이 하나되어, 4월, 38쪽
벤 섬의 일리암 존스, 8월, 어린이란 14쪽
- 리버트, 멀린 알
자녀들의 특별한 신분, 7월, 31쪽
- 린지, 리차드 피
"내 양을 먹이라", 7월, 45쪽
- 링지 한스 비
"우리가 어찌 할꼬?", 7월, 86쪽

ㄹ

- 마틴스, 헬베시오
어둠에서 빛으로: 회개의 은사, 10월, 32쪽
- 매리엇, 페이지
노래 가사, 4월, 33쪽
- 매리오티, 아만다
기적을 원함, 2월, 48쪽
- 맥스웰, 닐 에이
"네 가족을 특별히 돌볼지이다", 7월, 88쪽
참된 신자, 12월, 10쪽
"태초부터", 1월, 18쪽
- 맥케나, 이르마 드
방문 교사로 봉사한 삼십 년, 3월, 20쪽
- 맥코노키, 바바라 에이
계명을 지키라, 2월, 어린이란 10쪽

- 맥클란, 제프리 에스
헝가리 국민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12월, 16쪽
- 멜친, 제럴드 이
결경, 7월, 80쪽
- 모릴, 메릴
가르침의 순간, 4월, 24쪽
- 몬테레이, 안나 모라
한밤 중의 평안, 5월, 26쪽
- 몬슨, 토마스 에스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10월, 35쪽
삶의 고난을 헤치며, 1월, 68쪽
신권-성스러운 책임, 7월, 49쪽
신앙의 열쇠, 5월, 2쪽
예언자 요셉 스미스-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6월, 2쪽
위로 향한 길, 1월, 47쪽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 7월, 91쪽
평화에 이르는 길, 7월, 60쪽
- 미첼, 데이비드
"제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태국의 루치라완 폰폰그레트, 6월, 10쪽
- 민스, 아만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 3월, 33쪽
- 밀너, 니타 데일
나 침례받고 나면, 6월, 60쪽
- 밀렛, 로버트 엠
예언자들 중의 요셉 스미스, 6월, 26쪽

ㄹ

- 마로우, 브렌트 에이
모든 사람이 참여함, 8월, 18쪽
- 바스케스, 가말리엘 알시데스
물에서 주는 소책자, 8월, 22쪽
- 바알만, 테오도루스 지
보호의 손길, 9월, 30쪽
- 바케, 세인
네가 가르칠 차례야, 3월, 44쪽
- 벨라드, 엠 러셀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10월, 8쪽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10월, 35쪽
다양성을 통한 평화, 1월, 89쪽
영혼의 닻, 9월, 40쪽
평의회와 함께 협의함, 7월, 24쪽
협의의 힘, 1월, 76쪽
- 뱅크스, 벤 비
자녀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11월, 28쪽
- 버튼, 에프 엔지오
귀기울이는 용기, 7월, 66쪽
- 베이트먼, 멜릴 게이
장막의 줄을 길게 하여, 7월, 65쪽

벤슨, 에즈라 테프트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 2월, 2쪽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4월, 2쪽

보스키, 버나 터핀

라마야, 이리 와!, 9월, 어린이란 1쪽

보일, 셋 에이치

온 마음을 다하여, 8월, 44쪽

부쉬, 에프 엔지오

문제는 진리입니다, 1월, 24쪽

블프, 루이스

94세에 다시 태어남, 6월, 24쪽

브라잇, 버지니아

특별한 조장, 5월, 60쪽

브라운, 에스 켈트

출애굽: 하나의 시험과 간증 및
본보기로서 조명해 본 글, 3월, 34쪽

브랜치, 크리스틴

성찬 책, 4월, 63쪽

브러프, 몬트 제이

이스라엘의 현대 용사, 1월, 63쪽

비들프, 스티븐 지

나의 적의 일기, 9월, 32쪽

入

살리나스 브이, 넷자왈코요틀

씨뿌리는 날, 8월, 32쪽

썸프, 단과 캐더린

빛을 기억함, 8월, 34쪽

술턴푸스, 맷시

비오는 날, 2월, 60쪽

웨일러, 제니

중국에서 온 보물, 4월, 8쪽

스미스, 올레 엠

"그 자매님이 오늘 나오실 줄 알았어요",
8월, 8쪽

스코트, 리차드 지

병고침을 받음, 7월, 7쪽
"영적인 지식을 얻음", 1월, 86쪽
영의 속삭임, 10월, 어린이란 2쪽

○

아담스, 켈린 리스

스펜서 더블류 김본, 5월, 50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9월, 어린이란 14쪽

아마도, 칼로스 에이치

영원한 시간, 1월, 44쪽

에드워드, 주디

"제명을 지키라", 4월, 56쪽
구원의 계획은 저에게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3월, 56쪽
내가 용서하지, 9월, 어린이란 8쪽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58쪽
선교사는 평화를 공포함, 11월,

어린이란 10쪽

성구 찾기, 8월, 어린이란 10쪽

잠잠하라, 고요하라, 6월, 54쪽

"주 예수를 닮으려고", 12월, 어린이란
7쪽

평안, 2월, 58쪽

에이시, 칼로스 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7월, 10쪽

엘리스, 게일

피터의 부활절 이야기, 4월, 60쪽

에이츠, 엘마 제이

파이퍼 형제님의 파이, 11월, 어린이란
12쪽

오까자끼, 지에코 엔

구세주께로부터 나오는 힘, 1월, 94쪽

오노, 노리코

태풍, 10월, 30쪽

옥든, 디 켈리

모든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였음, 4월, 10쪽

옥스, 델린 에이치

십일조, 7월, 33쪽
위대한 행복의 계획, 1월, 72쪽
죄와 고통, 4월, 26쪽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7월,
98쪽

올리버, 미셸 브럼

애비의 날, 8월, 어린이란 12쪽

우디, 웬디 에번즈

최고의 교사, 9월, 46쪽

올로아, 빈센트 무노스

완전한 활동 회원이 됨, 9월, 22쪽

워너, 시 테리와 수잔 엘

어린이들이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움, 8월, 26쪽

위스린, 조셉 비

순종하는 생활, 7월, 39쪽
우리 주 구세주, 1월, 5쪽
프랑고 자매와 성전, 5월, 52쪽

위커, 디엔

로마의 바른 길에서, 3월, 10쪽
신앙의 기초, 11월, 40쪽
이탈리아 시에나의 레베카 파바레토,
5월, 62쪽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시몬 밀로, 2월, 50쪽

위크스, 스테이시 차일드

금주의 성구, 6월, 9쪽

웰쉬, 캐롤 엘리

산 속에서의 경건함, 3월, 50쪽

윌킨슨, 타일러

이전과 이후, 11월, 26쪽

이버슨, 스티븐

캐리의 성약, 10월, 어린이란 4쪽

스

잭, 엘레인 엘

"나와 함께 행하라", 7월, 15쪽
"네 발의 행할 점경을 평탄케 하며",
1월, 98쪽

잭슨, 켈트 피

아브라함의 성약: 만인을 위한 축복,
2월, 42쪽

켄슨, 말린 케이

선한 생활의 힘, 7월, 47쪽

젱슨, 멜콤 에스

영적인 병고침을 위한 신성한 처방,
7월, 17쪽

조오지, 로이드 피

감사, 7월, 27쪽

존슨, 리사 에이

영원을 위한 도로 여행, 5월, 46쪽

존슨, 메리 헤이즌

구약전서를 좋아하게 되는 법을 배움,
2월, 41쪽

존슨, 알 발

모든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였음, 4월, 10쪽
미크로네시아에 새로운 항로를 만듦,
12월, 40쪽

존슨, 케네스

누가 지배하는가?, 6월, 18쪽
우리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심, 7월, 29쪽

존스틴, 캐럴린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6월,
34쪽

츠

초우트, 제인 맥브라이드

초코바, 8월, 어린이란 6쪽
성스러운 곳, 9월, 어린이란 12쪽

츄스 이세, 앨버트

어린이의 사랑을 성숙된 사랑으로
발전시킴, 7월, 13쪽

칼루요, 알파 알

나는 그가 예언자란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30쪽

케르쉬밤, 시 알

"아니, 저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금 어딜
가고 있지?", 6월, 44쪽

켈리, 리네트 에이치
고대 이스라엘의 선물, 8월, 14쪽

켈리, 패트리야
스펜서 더블류 킴블: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3월, 26쪽
주님의 화살통에 담긴 갈아 놓은 화살, 2월, 18쪽

캠벨, 질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함, 3월, 60쪽

콘더, 마조리 드래퍼
준비된 사람들: 아프리카의 말일성도들이 보낸 미술품 및 기념품, 5월, 32쪽

콘디, 스펜서 제이
마음이 큰 변화, 1월, 15쪽

크리스틴슨, 조 제이
오염된 환경에서 자녀를 키움, 1월, 11쪽

클라이드, 에일린 에이치
상호부조희: 그 지도적인 원리인 사랑, 1월, 92쪽

클레이튼, 모린
러시아에서 맺은 우정, 3월, 46쪽

클레이튼, 폴리스
우리 모두 성전을 찾아가 봐요, 9월, 어린이란 16쪽

ㄷ

더너, 엘리자
브롱크스의 소년, 4월, 20쪽

테일러, 레메카 엠
계보 사업 일백년, 11월, 어린이란 4쪽

토마스, 재닛
새로운 여름 친구들, 6월, 46쪽
노력의 예술, 5월, 12쪽

투아슨, 마이즈
알빈 마티네스: 마친루처럼 하늘까지, 8월, 10쪽

트사이, 카산드라 린
나 자신보다 더 큰 어떤 힘, 5월, 9쪽

ㄹ

파머, 로즈메리 지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사는 킬릴 킬릴루과 타나 홀로쇼, 12월, 어린이란 13쪽

파우스트, 제임즈 이
"독수리의 자취", 9월, 2쪽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7월, 4쪽
성약을 지키고 신권을 존중함, 1월, 36쪽
일어나서 방어하라, 8월, 46쪽

패커, 보이드 케이
모든 장로들과 모든 자매들이 알아야 하는 것, 11월, 14쪽
아버지와 가족, 7월, 19쪽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1월, 21쪽

페이일 엘 톰
"나는 ...배웠고", 7월, 36쪽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1월, 66쪽

페티 룬다
보물, 6월, 61쪽

페린, 캐스린 시
타이티 섬의 진주, 6월, 14쪽

페이스, 글렌 엘
자신의 간증, 3월, 62쪽

포울먼, 로널드 이
하나님의 용서, 1월, 84쪽

폴슨, 비비언
모세, 6월, 50쪽

프렌트 펠리스, 아넬리스
함께 짝여지는 인생, 10월, 46쪽

피네가 페트리샤 피
신앙이 증가됨, 7월, 94쪽

피녹크, 휴 더블류
기쁨으로 가득 찬 영원한 운항을 위한 개인 점검표, 1월, 40쪽

피셔, 우슬라
내 마음에 드리워진 철벽, 9월, 24쪽

피어스, 버지니아 에이치
신앙이 해답입니다, 7월, 92쪽
와드/지부 가족: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일부, 1월, 79쪽

피터슨, 에이치 버크
"사악한 은사나 불결한 것은 손에 대지 않도록 하라", 1월, 42쪽

피터슨, 칼
네 자신을 단련시키거라, 10월, 48쪽

핀버로, 잔
샘 케이 시마부꾸로 장로, 4월, 53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7월, 별책 부록
홀리오 이 다빌라 장로, 6월, 52쪽

ㅎ

하몬드, 에프 멜빈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함, 7월, 82쪽

해일, 리네트 버크
진정한 간증, 5월, 54쪽

헨슨, 더블류 유진
행복의 추구, 1월, 81쪽

헌터, 하워드 더블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7월, 64쪽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 11월, 2쪽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권유하심, 10월, 2쪽

헤이트, 데이비드 비
나사렛 예수, 7월, 75쪽
선교 사업-우리의 책임, 1월, 61쪽

헤이폰, 브루스 시와 마리
상반되는 것, 기쁨과 기분 좋은 생활, 3월, 14쪽

헤일즈, 로버트 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메시지, 7월, 78쪽
자녀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1월 8쪽

헤일즈, 재니트 시
영적으로 성장함, 7월, 96쪽

홀런드, 제프리 알
토마스 에스 몬스 부대관장, 10월, 16쪽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 1월, 13쪽

후프만, 로리
주 사랑 느껴요, 3월, 54쪽

허머스, 질 존슨
렉스 디 피네가 장로, 2월, 52쪽

히튼, 조이 존슨
사라 마틸라 파르, 6월, 56쪽

힐, 머논 엘
45년 동안의 십일조 계정, 12월, 8쪽

힐러, 래리 에이
기적적인 선교 사업, 2월, 12쪽

힝클리, 고든 비
가장 가치 있는 것, 3월, 2쪽
교회 역원 지지, 1월, 4쪽
나의 간증, 1월, 51쪽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10월, 35쪽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8월, 2쪽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7월, 72쪽
자녀를 빛과 의로움 안에서 키우십시오, 1월, 54쪽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7월, 53쪽
항상 선한 일을 함, 12월, 2쪽

영적인 확산

첫 번째 시현을 본 지 삼 년이 조금 지난 1823년 9월 21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입장과 처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로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 사건에 대하여 “전에 얻은 것과 같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지시를 얻을 수 있다고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요셉 스미서 2:29)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이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권고에 순종하였고, 시현을 보았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간증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마다... 후하게 주신다(야고보서 1:5 참조)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개인적인 의로움과 함께 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 위해 힘쓸수록, 의로운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를 그분은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가질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청소년들의 하이킹 활동을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어떤 한 자매는 그 임무에 대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야외 활동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고, 그 활동을 위해 사전 답사를 했을 때 몹시 지쳤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한 다음, 하이킹을 시작했습니다. “그 하이킹은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



그림 세리 리 보이어 도터

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무한히 친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분께서는 즉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모사이야서 2:24 참조) 우리가 그분의 친절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또한 축복을 받을 것이며 그분에 대한 확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또 다른 자매는 그녀의 와드에 있는 한 젊은 자매를 도와서 성찬식의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지명받았는데, 마지막 예배 순서가 혼란 속에서 끝났어도 화평스러운 영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열심히 연습했어요. 주님은 그분의 종을 통해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명하셨어요. 과거에도 저는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지켜 보았죠. 그리고 저는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모임 중에 그분의 영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강화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를 강하게 하여 모든 도전을 극복해

낼 수 있게 해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딪치는 역경에 우리는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점을 이길 수 있고 역경을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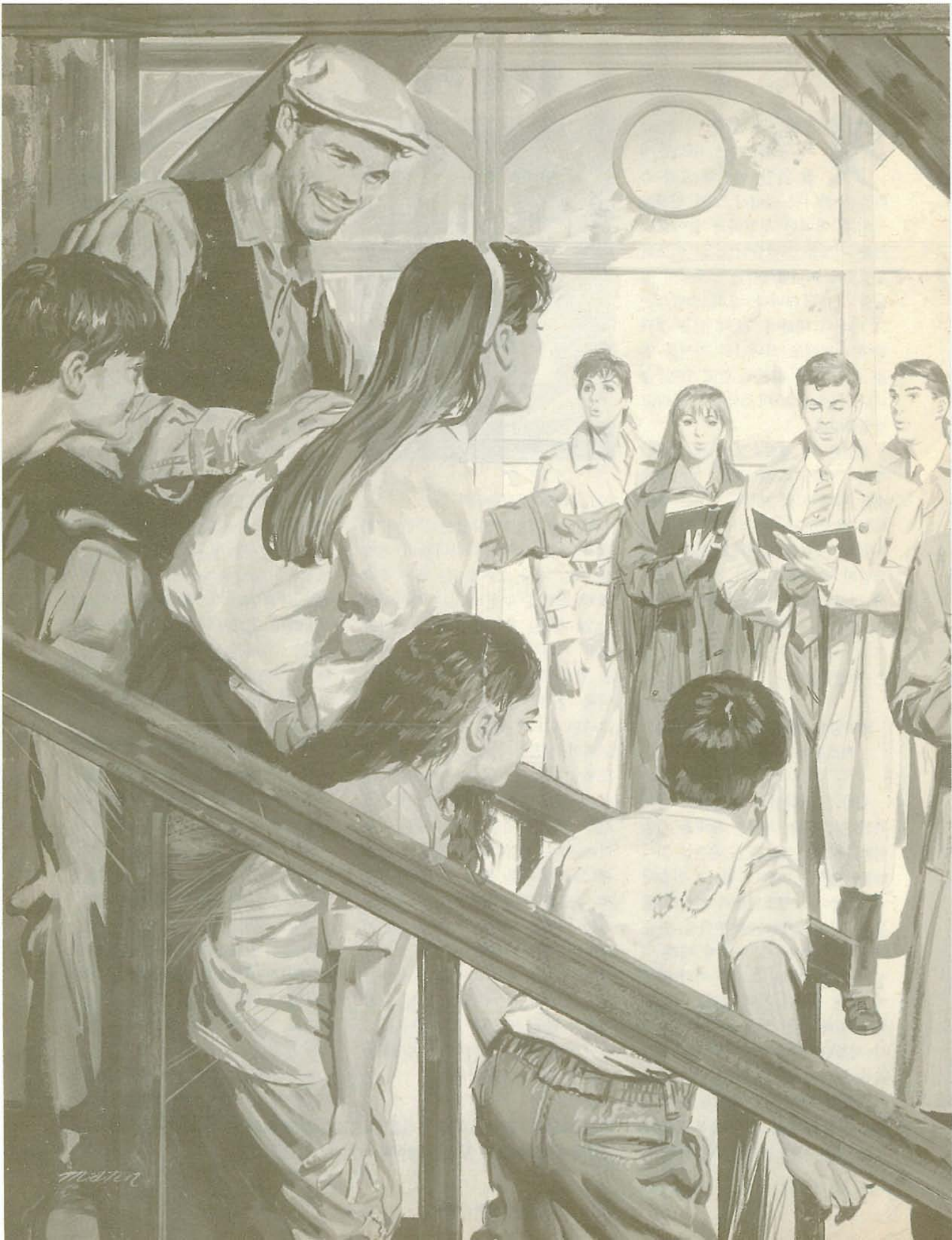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으며,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것들을 성취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확신과 믿음의 느낌 및 평온한 영을 지니고 행할 수 있습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의 가르침, 69쪽)

유타주 프로보의 델마 본햄 드종 자매는 그녀의 남편이 암으로 죽어 가고, 그녀 자신의 건강마저 나빠져 감에 따라 아주 어려운 역경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오직 선하신 주님만이 제가 수개월 동안 겪어온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언제나 마음속으로 담대하게 나의 어려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헌신하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끊임없는 도움 없이는, 제가 남편이 오랫동안 병석에 있을 때에 헌신적인 간호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운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에 신앙은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지탱시켜 주니까? □



포르투갈에서의 크리스마스 밤

반더 페레이라 드 안드라데

우리는 그 해 크리스마스에 포르투갈에 있는 우리 지역의 다른 선교사들과 만나서 선물을 교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있던 포르투와드에서 느꼈던 크리스마스의 영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와 내 동반자는 마침내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우리의 구도자들을 방문하여 크리스마스 송가를 불러 주자는 결정을 했다. 그 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 찬성하였고, 곧바로 우리는 우비와 우산, 경전과 찬송가를 집어 들었다.

우리가 방문한 첫번째 가족들은 시내 중심가 근처에 있는 폐허가 된 수도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 살던 포르투갈 사람들이었는데 그 곳에서의 내란으로 인해 포르투갈로 피난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서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수도원에 도착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으로 통하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무 계단은 낡고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었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그들 모르게 갑자기 방문해서 기쁘게 해주려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의 뜰 한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커다란 빗방울이 지붕을 타고 머리 위로 똑똑 떨어졌다.

우리가 노래를 시작하자 밝은 눈동자와 행복에 찬 얼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늘 그런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제일 먼저 나왔고 곧 이어 부모들도 나타났다. 얼마 안 있어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방에서 나왔다. 몇몇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노래를 부르려 하였으나 그들은 노래의 가사들을 다 알지 못했다. 주위에서 내리는 비는 배경 음악처럼 노래의 반주가 되었고, 영의 속삭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 우



그 성탄절 밤 우리는 성스러운 노래를 함께 부르고 개인적인 간증을 함께 나누는 것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또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흘러 내리기 시작했다.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찬송가를 볼 수 없게 되자 우리는 노래를 멈추었다.

우리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 그들을 만나 소책자를 건네 주었고, 구도자들에게는 토론을 계속하도록 격려했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모두를 초대하였다.

우리는 다음으로 포르토 시의 중심에 있는 미국 영사의 집을 방문했다. 동반자와 나는 그와 그의 가족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들은 부자였고, 도시의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의 큰 집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가 그 집 대문에 도착했을 때, 하인들은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에게 들어가도록 했다. 우리는 대문 바로 앞에서 수도원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렀던 바로 그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그룹은 20명 이상의 선교사들로 구성되었는데 그들은 브라질, 포르투갈, 앙골라, 미국, 캐나다, 파라과이, 콜롬비아 등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첫 노래의 2절을 막 부르자마자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교관들로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그 곳에 모여 있었

다. 우리는 곧 그들의 얼굴에서 폐허가 된 수도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눈물과 웃음을 보았다.

우리가 노래를 마치자 영사의 부인은,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에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그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 영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완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안내되었고 각 선교사들은 자신의 모국어로 자기 나라에서 온 외교관들에게 간증을 전했다. 그 수도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소책자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 토론을 듣고 교회에 참석해 보라고 권했다.

그 성탄절 밤 우리는 성스러운 노래를 함께 부르고 개인적인 간증을 함께 나누는 것이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또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대가 없이 전달한 선물은 우리들 마음 속에 모든 선물 중 가장 가치있는 선물, 곧 주님의 영을 가져다 주었다. □





나는 그가 예언자란 사실을

알파 알 칼루요

내가 약 아홉 살쯤 되었을 때 두 사람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있는 나의 가족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그들의 단정한 모습과 다정함이 내겐 참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한 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영어로 가르쳤는데, 학교 선생님이셨던 어머니와 아버지만이 선교사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였다.

나는 어머니께서 물몬경을 집어 던지고 더 이상 읽기를 거절하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어머니는 교회에 대해 어떤 거짓된 말을 들으셨고 아버지께서 선교사들에게 우리를 가르치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 몹시 화를 내셨다.

아버지께서는 묵묵히 책을 집어드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여보, 마음을 열고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봐요. 이 책의 내용은 진실된 것이요. 이 책을 읽어 봐요. 그러면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거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6개월 후 놀랍게도 어머니는 우리가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물론 교회에 대하여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으며 또 다른 침례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침례를 받았다.

그렇지만 요셉 스미스가 커다란 문제로 남게 되었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으며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나는 “그것은 사실이



요셉 스미스 그림 에드워드 티 그리그에어

아니야!”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다. 주위 사람들이 나의 간증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할 때면 전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간증을 들은 대로 되풀이하곤 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믿지는 않았지만, 교회 가르침 중 일부는 분명히 믿었으며 매월 첫째 일요일 모임만 제외하고는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참 즐거웠다. 나는 여러 번 교회의 회원들이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로 인해 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다. 마침내 나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았다. 교회에 가지 않으려는 구실을 내세웠지만,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일요일에 집에 남아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내가 14살 때 아버지께서는 나를 세미나리 반에 등록시키셨다. 그로 인해 나는 몹시 괴로웠다. 흥미가 없었으므로 난 강제로 참석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첫번째 모임에 난

일부러 늦게 도착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회에는 관리인이신 세딜리오 형제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이 바로 내 세미나리 교사였던 것이다.

다른 학생들이 도착하자, 세딜리오 형제님은 우리 중에 물몬경을 읽어 본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책을 펴고 우리에게 따라 읽으라고 하고 니파이일서 1장 1절부터 시작하였다. 나는 교사가 그날 그것 이외에 무엇을 더 가르쳤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것은 물몬경에 대한 그의 강한 간증이였다. 나는 마음 속 깊이 감동받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행복감을 느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물몬경을 읽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나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물몬경을 읽기 시작했다. 자정까지 계속 읽었다. 나는 읽으면서 마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처럼 물몬경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마음속에 그려 보았다. 어떤 말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물몬경의 예언자들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참아 낸 고통의 내용들을 읽을 때에는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런데 난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이 예언자들이 행한 것과 똑같은 것을 했다고 하여 화를 내었던 것이다. 나 자신이 예언자들을 박해한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생각되었으며, 내 자신이 얼마나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던가를 깨달았다.

다음날도 밤이 늦도록 계속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읽었다. 물론경을 다 읽을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가 아침에 책을 다 읽었을 때,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 기도를 통하여 물론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됨을 간증으로 드렸다. 그리고 물론경이 참으로 진실된 것이라면 요셉 스미스 역시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물론경을 번역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눈물로 나의 얼굴을 적시며 "아멘"이라고 했다.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러한 경험은 후에 내가 필리핀 세부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그것은 내가 요셉 스미스와 물론경에 대한 구도자들의 걱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오늘날까지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



칼루요 가족이 침례 받는 날, 윗쪽 알파와 그녀의 동생 알렉시스가 그들의 부모인 에딜베리토와 엘리카 앞에서 있다. 존 데니스 코널레즈 장로(왼쪽)와 프레스톤 달 장로가 그들과 함께 있다. 몇 년 후 알파 자매(오른쪽에서 있음)는 필리핀 세부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민들레에게서 얻은 응답

밀리 프리츠 레이에스

어느 날 나는 세 살과 네 살 난 두 딸을 데리고 산책을 하러 나갔다. 우리는 아름다운 집과 화려한 색의 꽃이 피어 있는 정원 옆을 지나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핀 야생화들로 둘러싸인 키가 큰 나무들도 보았다. 그 나무들 역시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아이들은 작고 밝은 해처럼 피어나는 민들레를 보았다. 그들은 각자 하나씩 꺾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 노란 꽃봉오리들은 곧 회색 빛으로 시들어 버렸다.

“왜 그 꽃들을 꺾었지?” 나는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줄 때라고 생각하며 물었다.

“왜냐하면 그 꽃들이 너무나 예쁘기 때문이죠!” 둘 다 소리쳤다.

“그 꽃들이 지금도 예쁘니?”

“아니요.” 큰 딸은 대답했다. “밖에 버리세요!”

나는 살아 있는 식물이 뿌리째 뽑히면 약해져서 죽게 된다면 자연을 함부로 훼손시키지 않고 감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딸들은 이해했다.

아이들은 다시 나가 놀기 시작했고 나는 여전히 그 작은 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시련을 견뎌낼 만한 간증을 갖는 데 필요한 양육을 받지 못한 비활동 회원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우리의 간증이 신앙에 뿌리를 박고 계속해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얼마나 쉽게 시들어 죽게 되는가에 관해 생각했다.

나는 이 보잘것없는 비유가 나를 괴롭히던 한 문제에 대한 응답임을 인식하였을 때 갑자기 가슴이 떨렸다.

남편은 언제부턴가 교회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으며 나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활동이 되는 것에 관해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단지 잠시 동안만일 것이라며 합리화했다. 나는 옳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오고 있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다.

그날 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우리의 산책과 민들레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만약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교회에서 받은 관심과 돌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일요일마다 내가 주님의 정원에서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주는 사랑과 주님의 영으로 먹여졌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내가 경전을 읽음으로써 매일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었던 것이다. 그것들은 내가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평화의 징표로 키스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두 송이의 민들레를 통하여 주어진 응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





몰몬경에 나타나 있는 크리스마스



누가복음의 구절들은 마치 옛 친구의 목소리처럼 위안을 주며 친근감 있게 울려옵니다.

만아들…… 말구유 안에……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서 종종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니파이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는 구세주가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이미 시현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레이맨인 예언자 사무엘의 용감한 예언은 어떤가요? 그는 사악한 자들의 화살에 맞아서 장차 다가올 빛에 관하여 예언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예언자에게 다음과 같은 위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니파이삼서 1:13)

몰몬경에는 위안과 확신을 주는 말씀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마음에 드는 구절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잔칫상의 음식처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그 말씀에 친숙해지도록 합시다. 경전을 펼치고 여러분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몰몬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무엘(위)과 니파이인 예언자들은 구세주의 탄생(왼쪽)과 주께서 베푸실 성역에 관해 상세히 예언했다. 그들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보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독생자이심을 간접적으로 증거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후(위)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언을 믿고 예수님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던 미대륙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어 보이셨다.(오른쪽)

이더서 3:9, 14, 16

이에 주님께서 저(야렛의 동생)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가진 신앙으로 인하여 장차 내가 살과 피를 갖게 될 것을 네가 보았나니,……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비된 자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내가 지금 보는 바 나의 몸은 영체라. 내가 나의 영체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이제 내가 네 앞에 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 같이 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어 보이리라.

니파이일서 10:4

나의 부친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난 육백년 후에 주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 메시아 곧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언자를 세우리라 하시었으며,

힐라맨서 14:3~5

보라 이제 그가 강림하실 때의 표적을 너희에게 주리라. 보라 그가 오실 때에 하늘에 큰 빛이 있어 저가 오시기 전날 밤은 어둡지 아니할 것인데, 사람들에게는 마치 낮과 같을 것이요, 한 낮과 밤과 그 다음 낮이 모두 한 날 같아 밤이 없으리니,…… 주가 나시기 전날 밤이 그러하리로다.

또한 보라, 너희가 전에는 보지 못하던 새 별이 돋으리니, 이것이 또한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요,

니파이일서 11:14~15, 18~20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한 천사가 내 앞에 내려와 서서 내게 이르기를, 니파이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저에게 말하기를, 모든 처녀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뛰어난게 아름답고 우아한 처녀 한 사람을 보나이다 하였더니, 그가 내

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보는 처녀는 육체를 입고 오실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시니라.

나는 그 처녀가 영에 인도되어 감을 보았으니, 그 처녀가 영에 인도되어 가고 나서 천사가 내게 보라 하시기로, 눈을 들어 그 처녀를 봄에 어린 아이를 팔에 안고 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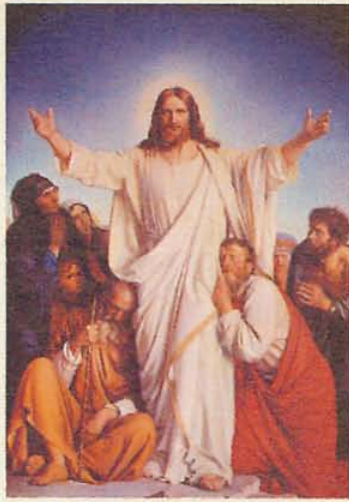
모사이아서 3:8

저는 하나님의 아들, 테초로부터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늘과 땅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이르리니,

엘마서 7:11~13

그가 세상에 나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시리니,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위와 오른쪽 :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생명과 사랑을 약속해 주셨다. 구세주의 속죄로써 이루어진 그 약속은 오늘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확산되고 있다.

또한 그는 그의 백성을 얽어 맨 죽음의 사슬을 푸시려 죽음을 당하실 것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어 자비로 가득 차게 하시리니,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을 아시려 함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고난을 받으심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구속의 힘으로 그들의 범법을 구제하시려 함이니,

니파이서 25 : 26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예언에 따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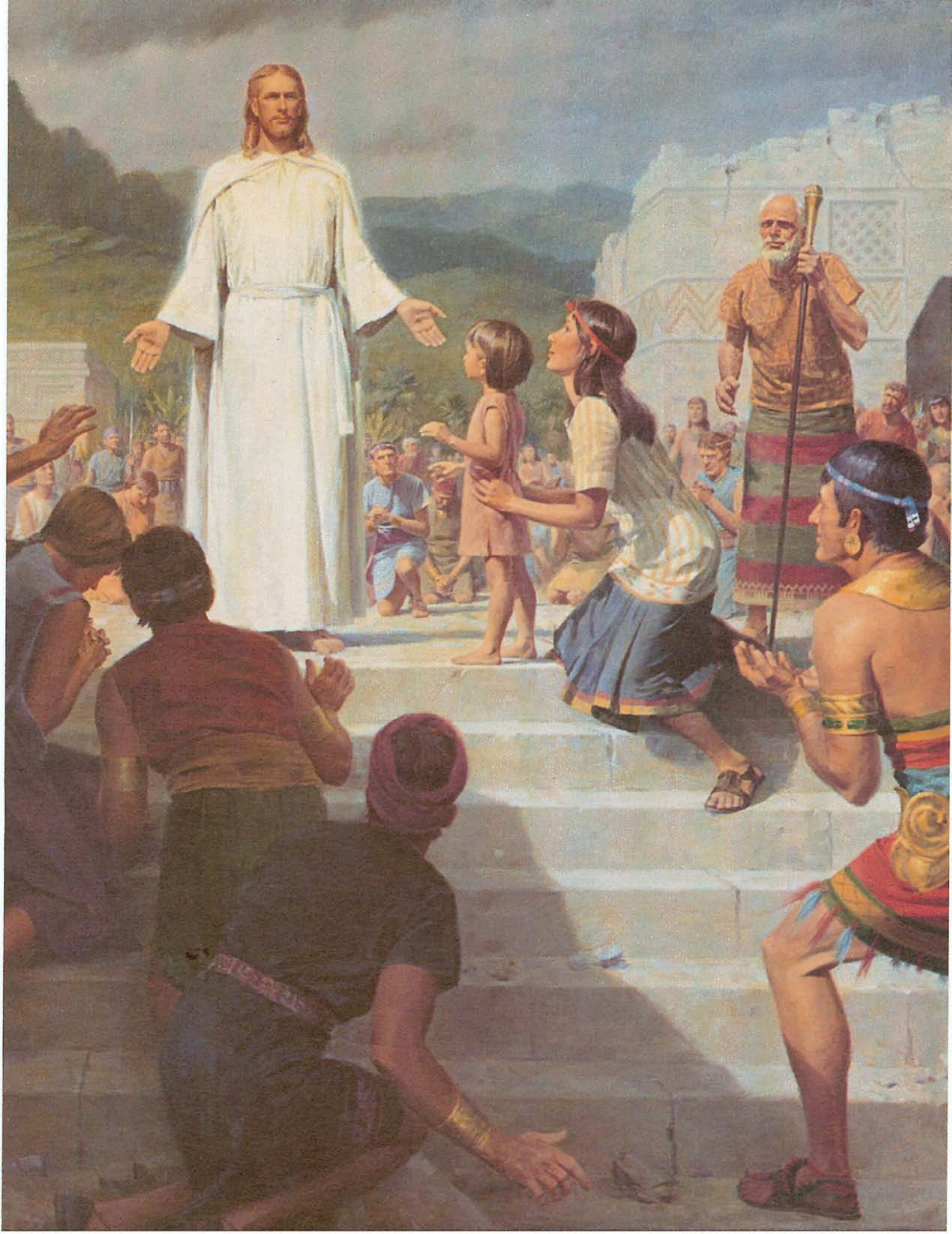
니파이삼서 1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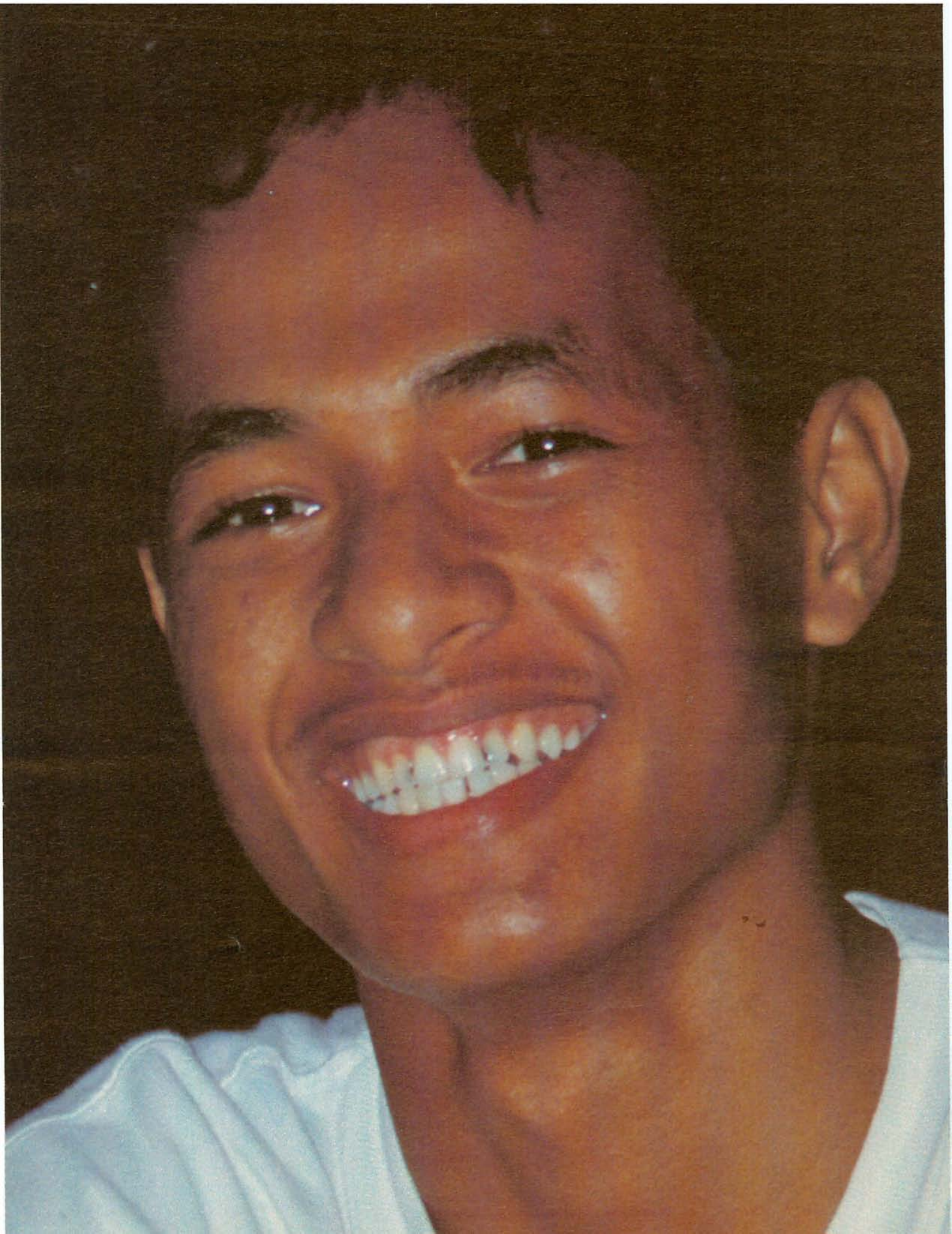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보라 때가 가까왔음이라. 오늘 밤으로 표적이 보일 것이요,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내가 나의 거룩한 선지자들로 세상에 전하게 한 말을 이루어 보이리도다.

니파이삼서 9 : 22

누구든지 회개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 이를진대, 내가 저를 받아들일지니, 이같은 자라야 하나님 왕국에 거할 수 있음이라. 보라 이리한 자를 위하여 내가 나의 생명을 버렸고 다시 취하였노라. 그러므로 땅 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나아와 구원을 받을지이다. □

위와 오른쪽 :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생명과 사랑을 약속해 주셨다. 구세주의 속죄로써 이루어진 그 약속은 오늘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확산되고 있다.





미 크 로 네 시 아 에

새 로 운 항 로 를

만 들

알 발 존슨

그는 카누 바닥에 누워서 파도의 미묘한 움직임을 느끼고 있다. 밀려오는 파도 물결들은 저마다 지금 막 어느 섬에서 밀려 나오는지 또 어떤 파도와 마주치는지를 알려 준다. 훈련과 경험을 통해 그는 그 파도들을 알며 그것으로 배가 어디쯤 있는지를 안다. 그리고 어디지를 알면 집이 있는 곳도 알게 된다.

오늘날에는 바다를 이용해서 항해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는 섬사람들이 많지 않다. 미크로네시아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섬기슭에 부딪쳤던 어떤 해류보다 더 강하고 혼란스러운 문화적인 흐름의 변화를 겪었다.

나 너희 주 하나님은.....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저들을 기억하며
(니코이아서 29:7)

미크로네시아는 11,649,000 평방 킬로미터(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넓은 크기)가 넘는 바다 위에 있는 태평양 중부의 군도이지만 그 땅 넓이는 모두 합쳐서 3,227 평방 킬로미터 (룩셈부르크 정도의 크기)에



왼쪽: 선교사를 돕는 동안 간증을 얻게 된 폰페이섬의 럭키 조엘.
위: 일몰 때의 팜

불과하다. 2,200개나 되는 작은 섬들과 환초 중에서 사람이 사는 곳은 단지 125개 정도이다. 그 섬들은 다 음과 같이 일곱 개의 정치 단위로 분류된다. 마샬 군도 공화국, 미크로네시아 연방주.(대부분 캐롤라인 제도) 벨라우 공화국, (미국령) 팜 준주(역자 주: 한 국가에 속하는 영토이지만 아직 정식적인 주

로 인정받지 못한 곳), 북 마리아나 연방, 나우루 공화국, 키리바시 공화국(이전에는 길버트 군도로 알려졌음). 환초 섬인 웨이크와 존스톤 섬처럼 어떤 섬들은 미국령이다.

천 년 동안 미크로네시아인들의 생활은 거의 똑같았다. 기온도 별로 변화가 없고 산호초로 둘러싸인 얕은 바다 속에는 섬에서 재배하는 과일과 야채 및 근채류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물고기들도 풍부하다. 기물을 겪은 군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섬에는 연중 내내 신록 상태를 유지시키기에 충분한 비가 내렸다. 질병과 그로 인한 죽음 및 바다의 위험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만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는 상부 상조의 전통과 더불어 아주 강하다. 여인들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추장은 남자들 가운데서 선발된다. 목공, 어로, 농사, 의약에 관한 기술이 가치 있게 여겨지며 이웃한 섬들과 기술 교환도 한다. 각 사람은 저마다 가족과 가문에 소속되어 있으며,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안다.

오늘날 변화의 물결은 거대한 파도처럼 미크로네시아 전역을 휩쓸고



위: 마그리나 삼 아이텐을 도와준 짐과 줄리 엘리스 및 그들의 딸인 매간.
오른쪽: 사이판에서 필리핀의 마닐라 성전으로 가기 위해 이기를 안고 있는 마그리나.

있다.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사람들은 대체로 조상들과 거의 같은 삶을 살지만,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세게 밀려들어오는 새로운 사회적 풍조에 맞서 싸우고 있다. 수세기 동안 잇달아서 여러 민족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 곳의 고대 문화는 많이 파괴되었으며 서로 혼합되었던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 물자 때문에 섬주민들은 자급 자족하는 생활에서 많이 이탈하였으며 정부 주도의 소비 주의 때문에 전통적인 기술들도 사라지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수입 식품들 때문에 당뇨병이 큰 건강 문제가 되었다. 술과 담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 가고 있다. 또 어떤 섬에서는 할 일도 별로 없고 갈 곳도 없이 낯선 바다 위

를 표류하는 젊은이들의 자살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모든 변화가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현대적인 의학 덕분에 수명이 연장되고 고통도 경감되고 있다.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가족 단위도 여전히 굳건하게 존속되고 있으며, 공동체의 결속도 변함없이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들이 수십년 동안 그 섬들에 전해 주었던 다음과 같은 메시지이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바다의 섬들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분의 교회는 이 격동의 시기에 안전한 항로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 훌륭한 소식이 퍼져 나감에 따라 더 많은 미크로네시아인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서 집으로 가는 길을 향해하고 있다.

여자의 얼굴이 유일한 미덕은 아니다(츄크 속담)

마그리나 삼 아이텐이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필리핀의 마닐라 성전에 갔던 이야기는 미크로네시아인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종종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얼마나 먼 곳까지 가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그녀는 츄크 (또는 트루크)에서 살 때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았다. 그녀는 선교사들에게 요셉 스미스에 관해 질문을 했었는데, 결국 그들의 답변에 마음이 감동되어 그녀는 복음 토론을 요청했다.

그녀는 몰몬경을 읽고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벌어졌다. 남편은 선교사들의 방문을 불쾌하게 여겼다. 장로들이 마그리나에게 금식에 관해 가르쳤을 때 그녀는 남편을 위해 첫 금식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저는 영을 느꼈어요. 그리고 남편의 마음은 부드러워졌어요.” 남편은 선교사들이 계속하여 마그리나와 자녀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한 달 후엔 남편도 함께 참석했지요. 1986년 1월에 남편과 저와 제일 큰 아이가 침례를 받았어요.” 라고 마그리나는 말한다.



그녀의 어머니도 그녀가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싫어하였다. “어머니는 제가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 딸로 생각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가족 관계가 개인의 선택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그것은 듣기 괴로운 말이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석 달 후에 마그리나의 어머니는 마그리나의 집에 와서 주말을 보냈다.

월요일에 그들은 가정의 밤을 가졌다. 마그리나는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는 아주 조용히 계셨어요. 우리 딸이 폐회 기도를 드리고 모임을 마친 후 아이들은 할머니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이건 아이들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방법 같구나. 애들은 네가 어릴 때와는 분명히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맞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후 오래되지 않아서 마그리나는 1,3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사이판으로 이사했다. 사이판은 인종과 문화의 도가니 같은 곳이었다. 마

아나 군도 북부에 위치한 그 큰 섬은(가로 23킬로미터, 세로 8킬로미터) 태평양 전역에서 온 사람들과 미국, 유럽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고향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일본 사람들은 그 곳을 인기 있는 관광지로 만들었고 필리핀 사람과 한국인들은 그 곳의 직물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왔다. 미크로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온 섬 사람들은 그 곳이 전통적인 미크로네시아 생활과 현대적인 서구 생활의 중간쯤 되는 생활 양식을 가진 매력적인 장소임을 알게 된다.

마그리나는 사이판에서 그 곳에



거주하는 미국 본토인인 짐과 줄리 엘리스를 만났다. 짐은 그녀의 가정복을 교사였고 줄리는 그녀의 방문교사였다. 1992년에 짐은 마그리나에게 성전에 가도록 격려해 주었다. 그녀는 가고 싶었지만 이미 그때엔 남편과 사별하고 재혼한 뒤였다. 비회원인 남편은 그녀가 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결국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그들은 별거하게 되었다.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로 가기 전 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집으로 들어와 제 얼굴을 보고는 제 마음이 바뀌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저는 그를 사랑했지만 또한 아이들도 사랑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선의 것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는 그녀의 여행을 허락해 주었으며 집에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까지 했다.

"그래서 저는 성전으로 갔어요. 엘리스 자매님이 동행해 주었어요. 저는 참으로 영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녀는 그 곳에서 전 남편을 위해 성전 사업을 행했다.

잠언에서는 현숙한 여인을 진주보다 더 가치있다고 칭송한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잠언 31:25, 28, 30)

미크로네시아에는 그러한 칭찬에 어울리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

뚜껑을 열어 보기 전까지는 코코넛 속에 유액이 들어 있는지 모른다.

(벨라우 속담)

.....

벤 로베르토는 지금부터 50년도 더 이전에 벨라우(일명 팔라우) 가까이 있는 폭 3킬로미터, 길이 4킬로미터 정도의 작은 섬인 앙가우르에서 태어났다. 벤은 "제가 어릴 때는 앙가우르가 넓게 여겨졌지만 잡지를 보고 다른 곳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 곳이 얼마나 좁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라고 말한다. 꿈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는 미 육군에 입대했다.

그는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다. 베트남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해 그는 굶주림과 고통과 죽음과 절망을 배웠다. 벤은 "전 그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라고 말한다. 군에서 제대한 후 벤은 미국에서 철공 일을 했다. 그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 다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해 보아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어요. 저는 인생에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어느 날 그는 호텔 방에서 성경을 한 권 발견했다. 그것을 읽고서 그는 자신이 찾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종파의 교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곤란한 일이 생겨서 저는 벨라우로 돌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어요. 고향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할 당시에 저는 밀위키에 있었어요."

벨라우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에 대한 벤의 탐구는 계속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1980년의 어느 날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그에게 접근해 왔다. 벨라우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낯선 것이었으며 그도 처음에는 선교사들의 말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물론경과 교회의 다른 여러 가지 간행물들을 읽은 뒤 그는 자신이 진리를 찾았다는 영적인 증거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을 찾은 그의 여행이 끝난 것이다.

벤은 침례받았으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주님께로 돌아섰다. 그는 자신의 나이에도 불구하고(당시 41세)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어했다. 기도를 통해 마침내 선교부장이 그를 지방부의 선교부로 부를 때까지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로베르토 장로는 벨라우에서 16개월간 봉사했다. 그는 해임된 지 얼마 안되어 결혼했으며 그 후 필리핀의 마닐라 성전에서 인봉받았다.

그는 교회에서 일관성 있게 꾸준히 모범을 보이며 봉사했다. 벤은 지금 지방부장으로 봉사한다. 그는 또한 벨라우 교육 위원회의 위원으로 주 의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는 "교회는 제게 가장 훌륭한 학교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교회에서의 경험과 또 교회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라고 말한다.

로베르토 부장은 선교사들이 미크로네시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조류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게 해준 것을 칭송한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아주 훌륭하게 교회를 대표해 주었기 때문에 많은 벨라우 주민들이 교회를 받아들이고 있



벤 로베르토(아래)는 지방부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벨라우에 있는 코로 톱시드 지부(왼쪽)의 활동적인 회원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벨라우 교육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주 의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

어요. 여기 오는 선교사들은 모두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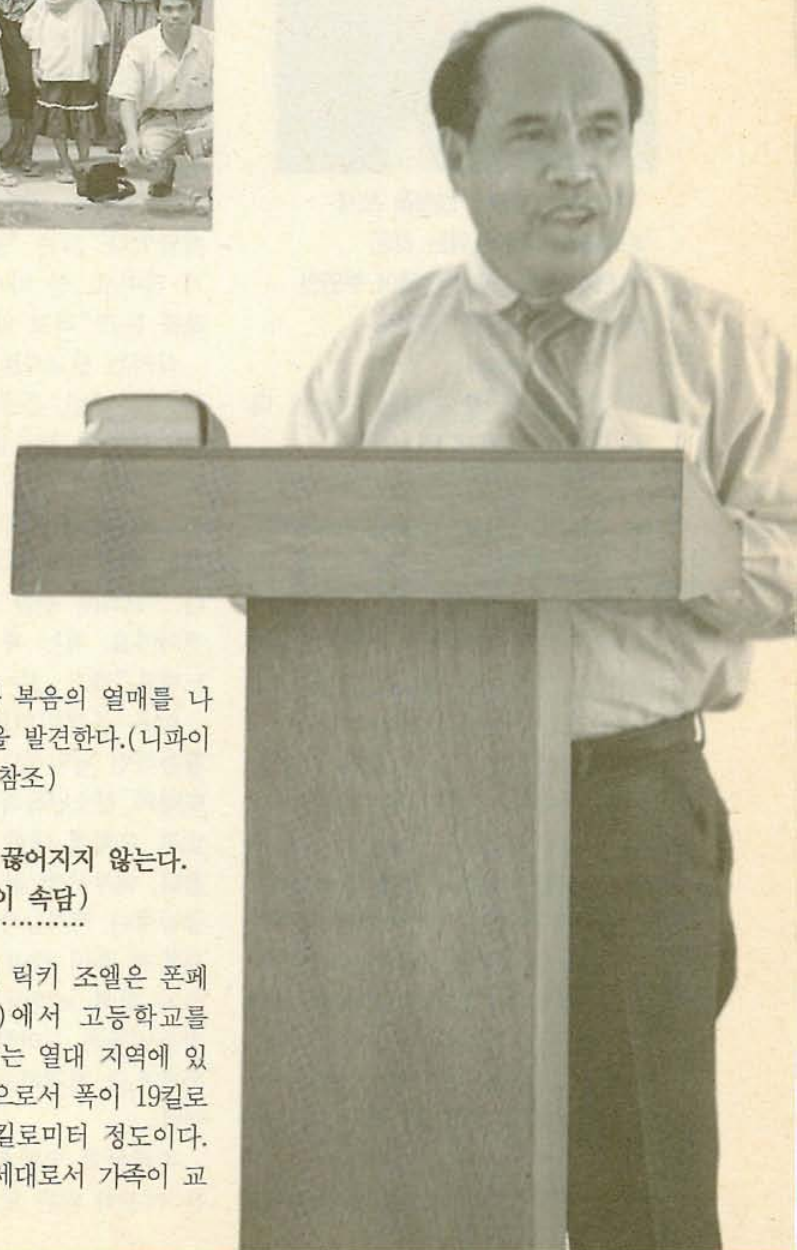
그리고 이제는 벨라우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있다. 벤은 선교사로 봉사할 때 레부르트 케소리라는 이름의 젊은 벨로아인을 가르쳤다. 케소리 형제는 로베르토 장로의 모범을 따라 최근에 선교사로 봉사하였으며 선교부장 보조로 임기를 마쳤다. 지금은 또 다른 젊은이들이 케소리 장로의 뒤를 이어 선교사로 나가고 있다. 이들 벨라우 출신 선교사들의 생활은 놀랍게 변화했다. 벤은 “주님은 이 젊은이들을 선교부로 데리고 와서 다듬어 주셨어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사람은 자신도 선교사가 되고 싶어해요.”라고 말한다.

벤 로베르토 자신도 빛을 비추는 사람 중 하나이다. 코코넛을 쪄개 유액을 맛본 후 그는 리하이처럼 사

랑하는 사람들과 복음의 열매를 나누는 데서 기쁨을 발견한다.(니파이 일서 8:11~12 참조)

가족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폰페이 속담)
.....

금년에 18세인 릭키 조엘은 폰페이(일명 포나페)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폰페이는 열대 지역에 있는 산이 많은 섬으로서 폭이 19킬로미터, 길이가 23킬로미터 정도이다. 그는 말일성도 2세대로서 가족이 교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물몬이 되는 것은 쉬운일이예요.”라고 폰페이 주민인 18세의 립키 조엘은 말한다.

회 회원일 때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한 실례를 보여 준다.

“오빠는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친구가 많아요. 그들은 ‘립키에겐 경의를 표해야 해. 갠제사야.’라고 말하죠. 또 제 여자 친구들은 모두 오빠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빈랑나무 열매로 이빨에 얼룩이 생기지 않은 소년을 보기란 드문 일이거든요.” 누이 동생인 재일린의 이야기다. 빈랑나무 열매는 강도가 약한 마약성 열매로서 라임과 함께 씹으면 치아가 빨강게 물든다.

립키의 부모는 폰페이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가입한 사람들에 속한다. 그의 아버지는 1977년에 먼저 교회에 가입했다. 어머니는 립키의 외증조부가 다른 종교의 성직자였기 때문에 교회에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았다. 선교사들도 처음 그 섬에 도착했을 때 박해를 받았다. 립

키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들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들을 친구로 삼았어요.”라고 말한다.

그때 이후로도 박해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거짓말도 계속 나돌았다. 학교 선생님들조차 반몰몬 비디옌을 이따금씩 보여 주었다. 그리고 술(술과 또 사카우라고 불리는, 사지가 마비되는 그 지역 특유의 음료가 대중화되어 있다.)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남성다움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립키는 지혜의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의 도전임을 깨달았다. 그는 “술을 마시면 친구가 많아요. 안 마시면 여자라는 소리를 듣죠.”라고 말한다.

립키는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었다. 그도 아버지처럼 장로들과 계속 우정을 쌓아 갔으며 지난 삼 년 동안 그들을 도와주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배웠다.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이 진실한 것이예요. 저는 제 자신이 고양됨을 느껴요.”라고 그는 말한다.

많은 폰페이인들이 립키와 다른 활동적인 말일성도 청소년들이 그들 또래의 청소년들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고 교회에 대한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알코올 중독이나 역기능적인 가족 생활같이 새롭게 흘러 들어오는 악습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그러한 문제를 더욱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폰페이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다

른 섬들에 있는 말일성도 청소년들처럼 그들도 역시 새로운 물결을 탐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대중에게 자신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를 선택함으로써 성공한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느끼는 사랑은 그들을 그분께 묶어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준다.

립키는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물몬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예요.”라고 말한다.

친절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마살 속담)

.....

마주로의 조르메토와 비네타 모레앙에게 선교사들이 처음 접근했을 때, 조르메토는 바쁘다고 말했다. 지금은 그가 진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음을 인정한다. 마주로에는 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 곳은 마살 군도의 수도지만 대부분의 산호섬들처럼 독립된 작은 세계이다. 제2차 대전 중에 환초 안의 여러 섬들을 연결해 주는 독길이 건설된 덕분에 마주로의 길이는 56킬로미터가 넘게 되었다. 그러나 폭은 여전히 수백 미터에 불과하다. 마주로에는 하나의 도로가 서쪽 끝과 동쪽을 연결해 준다. 섬 주민들의 가장 큰 수입원

마주로에 사는 베네타와 조르메토 모레앙은 가족들이 교회에 가입한 후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보아 왔다. 모레앙 형제는 “이전에는 가족들의 필요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배우고는 바뀌기 시작했어요.”라고 말한다.



은 정부에서 주는 급료이며 오락은 주로 자바로 이루어진다.

마살 군도의 사람들은 종교적이며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르메토는 자신이 불친절했던 것을 부끄러워하였으며 마침내 선교사들의 방문을 허락하였다. 처음으로 장로들이 집에 왔을 때, 비네타는 나가버렸다. 그러나 남편의 생활이 크게 바뀐 것을 보고 그녀도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다. 석 달 후인 1985년 7월에 조르메토와 비네타는 침례를 받았다.

조르메토는 현재 자신의 생활이 아주 훌륭하게 변화되었다고 말한다. “이전에는 가족들의 필요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로지 술과 담배에만 흥미를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배우고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경전과 교회 교재들을 읽기 시작했죠.”

비네타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에 가입하면 사람이 많이 변하게 돼요. 가정 생활도 나아져요. 서로 더 많이 존중해 주게 돼요. 몸까지 변하게 되죠. 그들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모레앙 가족에게 쉽게 변화가 온 것은 아니었다. “저는 선교사들에게 힘든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번도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와 형제처럼 항상 함께 있어 주었어요. 제가 그들을 멀리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들은 더욱 저를 사랑해 주었어요.” 조르메토의 말이다. 그들의 친절함과 관심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 들었으

며 마침내 시원한 바닷바람처럼 영이 그의 온 영혼을 휘몰아쳤다. 그때 그는 복음을 자신의 인생에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주로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랬다. 23,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마주로 주민 중 약 10퍼센트가 교회에 가입했다. 그들은 계속 활동적인 회원으로 남게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성도들은 훈련이 필요하고 신권 지도자도 부족하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마주로에는 곧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첫번째 스테이크가 생길지도 모른다. 모레앙 형제는 교회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른 교회들에서는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지 않거든요.” 그는 “사람들은 순수한 복음을 접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어요.”라고 역설한다. 조르메토는 직접 교회의 성장을 보아 왔다. 그는 침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주로에 있는 롱 아일랜드 지부의 지부장으로 부름받았다. 그 당시에는 단지 4명의 회원만이 교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나서 그가 해임될 때에는 100명 이상이 참석하게 되었다. 현재 모레앙 형제는 지방부장단에서 보좌로 봉사하고 있으며 롱 아일랜드 지부의 주일학교 회장으로서는 봉사한다. 또한 세미나리 교사이며 집회소의 관리인으로서도 일한다.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주께서 바다를 우리의 통로로 삼게 하시어(니파이서 1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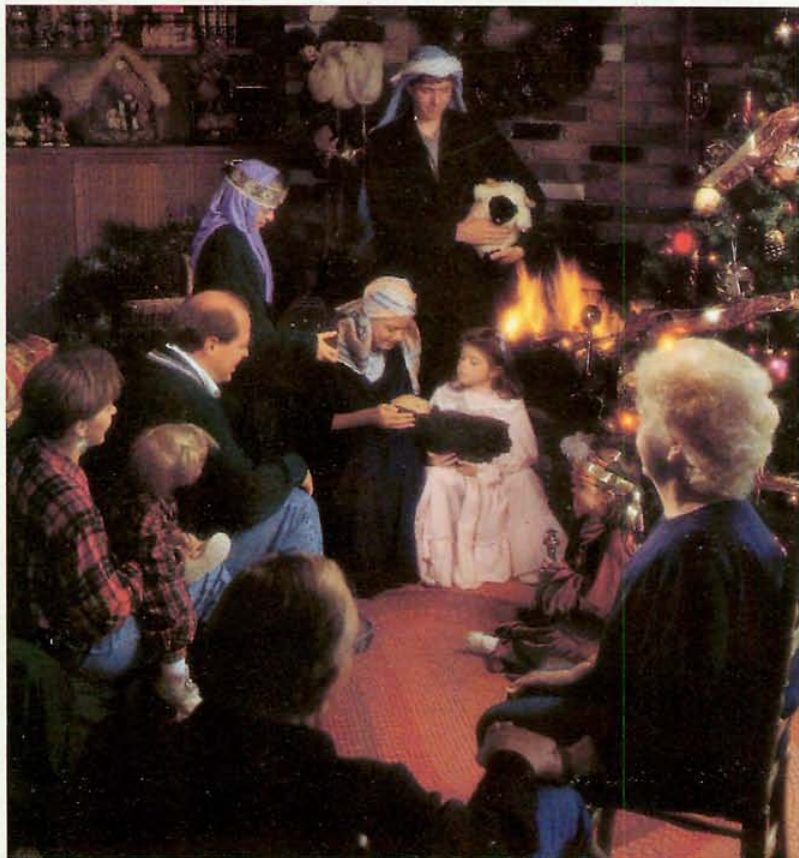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숙련된 항해사들은 새로운 뱃사람에게 항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막대기 해도를 사용했다. 군도 내의 파도 형태를 보여 주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그 해도를 참고함으로써 바다를 이용하여 섬에서 섬으로 가는 길을 찾는 데 숙련된다.

오늘날 막대기 해도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현대 과학이 그것의 필요성과 사용 방법에 대한 지식을 무용지물이 되게 해 버렸다. 마찬가지로 다른 면에서도 현대 세계는 마이크로네시아 전역에 엄청난 사회적 변화의 물결을 흘려 보냈다. 섬 주민들이 이 혼란의 외중에서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침몰하게 될지는 현재 그들이 하는 선택에 크게 좌우된다. 이전의 방식들 중에는 보존되어야 할 것도 있다. 또 버려야 할 것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관습 중 어떤 것은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전의 방식 중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릴지, 또 새로운 방식 중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것이다.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은 숙련된 항해사가 필요하다.

교회 회원들에게는 주님이 바로 그런 항해사이다.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통해 약속된 새로운 미래로 가는 안전한 항로를 만들어 주시고 있다. 야곱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주께서는 바다의 섬들 위에 사는 자들과 맺으신 약속이 크시도다. 너희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너희가 너희 뜻대로 행하여, 영생의 길을 스스로 택할 수 있음을 기뻐하라.”(니파이서 10:21, 23 참조) □



애굽으로의 피신, 그림:칼 하인리피 블로흐
(덴마크, 프리드릭스보흐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다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던고 의롭게,
단호하게 우리의 길을 나아가 [그분께] 갑시다...
만일 우리가 지금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그분께서는 그때에
우리를 사랑스럽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참된 신자”, 닐 에이 맥스웰 장로, 14쪽 참조